웹사이트: voice.kumcabq.com 페이스북: facebook.com/voiceofnm/

뉴멕시코
한인들을 위한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11/12월호
2021

Afternoon Aspen Trail 그림:Gary Kim / G.K. Fine Art Gallery, Santa Fe

CONTENTS

뉴멕시코 교민여러분 | 윤태자 : 3
순회영사업무/김치축제 : 2
풀뿌리 운동 강연을 다녀와서 | 주동완 : 4
산타페 영화세트장에서 총사고 : 5
2021년 국제 열기구 축제 : 6
Cover Story : 산타페 화가 게리 킴 : 7
물류대란과 세계 공급망 비상 : 8
'오징어 게임' 세계적 돌풍…" : 10
해외 목회자가 본 '오징어 게임'… : 11
새로운 단어 | 이정길 : 12
사회보장연금 대폭 오른다 : 14
누리호: 발사체 우주로 첫 걸음 : 14
대면 속회를 시작하다 | 김기천 : 15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 나정용 : 16
참 잘했어요 | 노여심 : 17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 | 나정자 : 18
What good is math? (영어이야기) | 이상목 : 20
애국심을 담은 일제말의 한글교육 | 이경화 : 22
에티오피아 선교를 끝내고 | 김광철 : 24
PLANO에 특이한 것들 | 김준호 : 27
택사스 달라스지역의 페어뷰 교회 : 28
하나님의 부름 정양송 이사/조용기 목사 : 29
첫 흑인 미 국무장관 콜린 파월 타계 : 30
뉴멕시코 한인교회안내 : 31
추가기사 뉴멕시코 한국학교장 인사 (이수신), 2022년 봄학기 등록안내, 특별활동사진 : 32-33

순회영사 업무 안내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한국 영사 순회 업무를 위해
오는 12 월에 뉴 멕시코 한인회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일시: 2021 년12 월 7 일 화요일, 오전 10 시부터 오후 1 시까지

장소: 뉴멕시코 한인회관 전화: (505) 271-1777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영사 업무는 당일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이번 순회영사 활동은 코로나 19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순회영사 방문 전 준비서류 및 민원관련 문의:

순회영사 방문 시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접속, 민원 종류별로 준비 서류 및 정확한 민원수수료(반드시 현금이나 Money Order 로 준비)를 미리 확인해 주세요.

홈페이지 주소: https://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index.do

상기 홈페이지 안내사항에도 불구 세부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총영사관 순회영사실 대표전화 (213) 385-9300, 내선 221-222 또는 당관 민원실 전용 이메일 (consul-la@mofa.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멕시코

김치축제

Kimchi Festival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21년11월20일(토)

오전10시부터 오후3시

장소: 뉴멕시코 한인회관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뉴멕시코주한인회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뉴멕시코한인회

뉴멕시코 교민 여러분!

윤태자
뉴멕시코주
한인회 회장

뉴멕시코 교민 여러분,

가을인사를 올립니다. 시간은 흘러 단풍이 곱게 물드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여전히 COVID-19로 인한 여러가지 삶의 불편함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점점 생활하는데 지장이 적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두달간의 한인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9월 8일에는 일곱분의 6.25 참전용사분들이 한인회관에 오셔서 어버이 회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셨습니다. 반가워하시고 좋아하셔서 2주에 한번 어버이회 식사 때 오셔서 함께해 주십사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9월 22일에는 Filipino Festival에 한인회 임원진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행사를 보면서 한인들이 힘을 모우면 어느 아시안 국가들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10월 17일에는 풀뿌리 운동과 정체성에 관한 세미나가 있었고 코리안 리서치 센터 원장 주 동완 교수님을 초청하여 뉴멕시코 한인들의 실정에 맞는 맞춤강연을 들었습니다. 강연 전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의 김인경씨의 피아노 독주와 갈릴리 한인 장로교회의 갈릴리 유스 체임버의 연주 그리고 차세대 이예원씨의 바이올린 독주로 행사는 더욱 빛났습니다. 많은 교민들이 참석하여 한인 이민사와 정체성에 대하여 강연을 들으며 하와이와 뉴욕 이민사를 배웠고 이곳 뉴멕시코에 처음 발을 디딘 한인은 누굴까 궁금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결핵치료를 위에 알버커키에 계셨다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거의 백년전인 1929년 미국에서 프린스턴 신학대학교를 졸업하시고 그해에 치료 차 이곳 알버커키에 오셨다면 한인으로써 처음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내년이면 한인회가 35주년를 맞이합니다. 한인 이민사를 들으며 이곳 뉴멕시코 한인역사에 대한 기록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35년에 이르는 한인회의 역사가 있고 총람이 있으니 누군가 맡아서 보충하고 책자로 만들어 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11월 20일에는 김치축제가 있을것입니다. 예전과 달리 다소 늦어진 감이 있지만 한국의 김치의 날이 11월 22일로 책정되었기에 한국의 법정 기념일에 맞추었습니다. 김치의 날은 식품으로서는 유일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한국이 김치의 종주국임을 알리고 여러가지 김치를 선보이는 김치축제에 많은 교민들이 동참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과 한국 관광공사에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12월 7일에는 영사업무가 있습니다. 12월 18일에는 정기총회가 있고 12월 29일에는 한인회관에서 조촐하게 망년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각 마켓에 한인회 행사를 포스터로 알리고 한인회 웹사이트에 올리는 소식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10월달 한인회 후원으로는 임낸시 200불 그리고 박순삼 500불이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어버이회 후원은 강은선 200불, 조영희 200불, 송춘자 100불, 최영애 100불이 들어왔습니다. 9월에는 알버커키 한인교회에서 식사 후원해 주셨고 10월에는 갈릴리 한인 장로교회와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에서 어버이회 식사후원을 해주였습니다. 다시 한번 지면을 통해 감사 드립니다. 각교회와 단체 그리고 개인이 한인회를 후원해 주시고 도와 주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제 19대 뉴 멕시코 한인회장 윤태자

어버이 회원 점심식사

갈릴리 한인 장로교회의 유스체임버 연주

뉴멕시코한인회

뉴멕시코한인회 풀뿌리 운동 강연을 다녀와서

주동완
코리안리서치센터 원장

'뉴멕시코한인회'의 초청으로 10월 16일부터 10월19일 까지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앨버커키를 다녀왔다. 요청받은 강연회의 주제가 '풀뿌리 운동'이라고 하여, 나는 '풀뿌리 운동과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다. 코로나 펜데믹이 막 시작하던 2020년 3월 중순에 앨버커키를 처음 방문한 후, 딱 1년 반 만에 두번째 방문이었다. 두번째의 방문이어서 공항에서부터 거리 환경과 주변의 모습까지 낯설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지 한인회장님을 비롯하여 처음 만나는 분들도 전혀 처음 뵙는 거 같지가 않았다. 앨버커키에 머무는 동안 이번 강연회를 준비해주시고 이곳저곳 내가 가고 싶은 곳들을 안내해주신 여러분들의 친절함과 환대가 더욱 그런 느낌을 갖도록 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분들께 감사드리고, 강연회에 참석하신 분들과 비록 강연회에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관심 가져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뉴멕시코한인회 회원 여러분들께 특별히 감사드린다.

'풀뿌리 운동과 정체성'이란 제목의 강연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풀뿌리 운동'이란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져 왔는데, 미국에서 1912년 진보당이 창당되면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1935년 공화당의 전당대회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면서 그 용어와 의미가 일반화 되었다. 풀뿌리 민주주의란 국민 개개인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 한 형태로서, 지방 자치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사회에서 지역주민의 일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직접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렇게 주민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타운홀 미팅'과 같은 주민자치회의를 통해야 한다. 그리고 타운홀 미팅의 결과를 실행하려면 시민권을 가진 주민들이 유권자등록을 하고 투표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커뮤니티 파워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그 파워로 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직접 그러한 정치가를 배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풀뿌리 운동의 과정이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 중의 하나는 주민들의 공통적인 이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사람들마다 자신의 관심사와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사안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공통적인 의견을 모으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주민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과 공동체적 의식이다. 즉, 평소에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으면 그 커뮤니티의 의사결정은 보다 쉽고, 신속하고,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통적인 인식과 의식 그리고 가치관은 그 커뮤니티의 정체성(Identity)을 형성한다. 따라서 그 커뮤니티의 정체성이 풀뿌리 운동의 성격과 방향을 결정한다. 또 그러한 정체성이 공통의 관심사를 이끌어 내기도 한다. 어느 단계가 되면 이렇듯 풀뿌리운동과 정체성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인 인구가 많지 않고 널리 퍼져 살고 있는 뉴멕시코 한인들의

풀뿌리 운동은 무엇보다 정체성 확립이 효과적이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뉴멕시코주 한인들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실질적인 문제가 된다. 그것은 재미한인들은 무엇보다 먼저 '코리안 아메리칸'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다. 재미한인들은 한민족으로서 그리고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에 더하여 이민자인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녀야 한다. 코리안 아메리칸의 정체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재미한인의 이민역사를 알아야 한다.

1883년 조선 최초의 서구사절단인 보빙사(報聘使)의 이야기로부터 1903년 갤릭호를 타고 하와이 사탕수수밭 농장에 내렸던 조선의 노동자들 이야기와 사진 한장 보고 결혼을 위해 태평양을 건넌 사진신부들, 6.25 한국동란으로 인한 미군신부들과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 고아들, 그리고 1965년 미국의 이민법이 개정되어 물밀듯 들어와 미국 곳곳에 자리잡은 한국인들의 역사를 배우고 익혀야 한다. 특히 뉴멕시코주의 한인들은 뉴멕시코 한인들의 이민 역사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뉴멕시코 한인 이민사에서 남겨진 장소와 공간들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고 이야기들을 발굴해야 한다.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기록들은 복구하기 힘들게 될 거다.

한인이민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고 공부함으로써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정체성을 갖는 것이 풀뿌리 운동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우리 공동체의 요구와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고,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영화배우 알렉 볼드윈, 산타페 영화 세트장에서 총사고 발생

영화배우 알렉 볼드윈(Alec Baldwin)이 목요일 오후 산타페 외곽의 세트장에서 서부극을 촬영하던중 사진 촬영 감독을 죽이고 또 다른 감독을 다치게 하는 소품 총을 발사했다.

실탄이 들어있었던 소총인 것을 몰랐던 볼드윈은 "가슴이 찢어진다"며 충격과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산타페 카운티 보안관 대변인인 후안 리오스(Juan Rios)는 42세의 사진 촬영감독 할리나 허친스(Halyna Hutchins)는 앨버커키에 있는 뉴멕시코 대학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으며 48세 조엘 수자(Joel Souza)는 산타페에 있는 Christus St. Vincent 지역 의료 센터로 이송되어 "응급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영화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에 따르면 촬영중인 영화 '러스트(Rust)'는 1880년대 캔자스에서 부모가 사망한 후 자신과 동생을 위해 살아야 하는 13세 소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한다. 소년은 지역 목장주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죄로 교수형을 선고받은 후 볼드윈이 연기한 오래동안 소원한 관계였던 할아버지와 함께 도주하는 얘기를 담고 있다고 한다.

뉴멕시코 필름오피스는 '러스트' 촬영이 11월 초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볼드윈은 IMDB에 따르면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영화와 TV 쇼에서 거의 150개의 역할을 맡은 A급 스타로 알려져 있다.

참조기사: Alec Baldwin fires prop gun that kills 1, injures another/앨버커키 저널/매튜 라이젠/저널 스태프 2021.10.22

지역사회 소식

2021년 국제 열기구 축제 성황리에 마치다

코로나 19로 인해 2020년 축제가 취소되어 2년 만에 재개된 알버커키 국제 열기구 축제(Albuquerque International Balloon Fiesta)는 10월 2일 부터 시작하여 9일간의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금년 행사에 참가한 열기구 숫자는 총 588개에 달했고 열기구 파이롯은 671명, 행사를 구경하러 온 방문객 수는 86만 6천 414명이었다.

목요일, 금요일에 있었던 특별한 모양의 열기구 쇼가 펼쳐지는 Special Shape Rodeo에는 83개의 특별한 모양의 풍선이 참가했다. 이들중에는 7층높이의 건물크기에 상당하는것도 있었다. 관계자 Scott Monahan씨에 의하면 일반적인 둥근 모양의 열기구 제작에는 약 5만불 내외가 들지만 특수모양의 열기구는 약 10만불의 비용이 든다고 했다.

유감스러운 것은 참가한 열기구가 모두 한꺼번에 뜨는 Mass Ascension을 센 바람때문에 마지막 이틀 연속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많은 열기구는 지상에서 풍선에 열바람을 불어 넣어 멋진 풍선을 관객이 감상할 수 있도록 지상 쇼를 베풀었다.

벌룬 피에스타의 이사장인 Matt Guthrie는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수 있게 한 참가한 시민과 파이롯과 지원업체등에 감사하며 내년에 마지하는Balloon Fiesta 50주년에 더 큰 기대를 건다고 말했다.

COVER STORY

아스펜 나무를 사랑하는 산타페 화가 게리 킴

Gary Kim

광야의 소리 표지 그림을 제공해 주신 재미 화가 Gary Kim화백은 뉴욕에서 활동해온 화가로 주로 구상 인물화에 집중했지만 2008년 콜로라도 아스펜으로 여행 중에 그 곳의 Aspen Trees와 사랑에 빠졌고 그 이후로 Aspen Tree painting을 작품주제로 추가 하였고, 아스펜 나무들이 군락을 이루어 살고 있는 로키산맥 Sangre de Cristo Mountains 끝자락에 위치한, 예술적인 영감이 넘치는 매혹의 땅 산타페로 이주 했습니다. 현재는 Santa Fe community college에서 Fine Art를 가르치고 산타페에 다운타운에 위치한 본인 아트스튜디오, GK Art School 에서 작업하며 미국 아티스트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Gary Kim화백은 유튜브를 통해서 영어강좌, 미술강좌등 온라인 교육에도 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Youtube.com 검색 창에서 한글로 "게리킴"을 검색해보면 많은 '10분 영작훈련' 강의를 볼수 있고 영어로 'Gary Kim Fine Art'를 검색해 보면 'How to paint Aspen Trees from start to finish'를 위시하여 많은 미술강좌를 올려놓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Gary Kim화백은 최근 서울에서 열린 국제 아트페어인 KIAF SEOUL에 초청받아 그의 그림이 전시 됐습니다. 부인되시는 Helena Kim 께서는 게리킴의 그림에 관한 모든 Management 를 담당하여 내조를 하고 계십니다. 서울 아트페어도 Helena Kim께서 한국방문하면서 관리를 담당 하셨습니다.

Gary Kim화백과 Helena Kim 께서는 산타페 한인 장로교회(김석훈 목사 담임)의 멤버이시며 두분 모두 집사님으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아티스트 홈페이지 :
www.garykimart.com
아트스쿨 홈페이지:
www.gkartschool.com

KIAF 전시장에서 Helena Kim

게리 킴의 유튜브 강의 영상 캡쳐

KIAF SEOUL 아트페어

VOA [뉴스 따라잡기]
전재기사

물류대란과 세계 공급망 비상

VOA 박영서 기자

“물류대란”

전 세계 물류 부족 현상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휴지나 생수 같은 생필품 구매 물량을 제한하는 대형마켓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자동차를 사려면 최소한 몇 달을 기다리거나 웃돈을 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신형 휴대폰을 구매하고 싶어도 물건이 없어 살 수 없는 형편입니다.

세계적인 운동화 생산기업 ‘나이키’도 연말 대목에 팔 물건 재고가 충분하지 못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른 제조업체들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조만간 해소될 조짐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소비 성수기인 연말 시즌에는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급망 위기”

이런 물류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복합적인데요. 우선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고 경제가 기지개를 켜면서 소비가 급증했지만 전 세계 공급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에 들어온 수십 척의 화물선이 입항하지 못한 채 며칠씩 앞바다에 적체돼 있다.

미국을 예로 들면, 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에는 전 세계에서 들어온 수십 척의 화물선이 입항하지 못한 채 며칠씩 앞바다에 적체돼 있습니다.

동부 쪽 사정도 마찬가지인데요. 동부의 관문인 뉴욕· 뉴저지항에도 화물선 수십 척이 며칠째 항구에 들어가지 못하고 롱아일랜드 앞바다에 둥둥 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서 물류 배송 지연 사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최대 항만인 펠릭스토우항에 처리하지 못한 컨테이너가 쌓이면서 병목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네덜란드 같은 주변국 항구를 이용해 이 곳에서 하역하고 소형 선박으로 다시 영국으로 실어나르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

전문가들은 공급망이 이렇게 원활히 작동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우선 인력 부족을 꼽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떠나고 산업 현장 곳곳에서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물건을 생산할 사람이 없고, 항구에서는 물건을 하역할 사람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영국에서는 기름을 운반할 유조차 운전사가 부족해 주유소 기름이 동났습니다.

차에 기름을 넣지 못하면서 일반인들은 출근을 못 하는 등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지만, 화물차 역시 꼼짝없이 발이 묶이면서 공급망에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에너지 가격 인상"

최근 원유와 석탄,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것도 이런 공급망 적체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은 석탄 수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지금 최악의 전력난을 겪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북동부 지역의 공장들이 생산을 중단하거나 부분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도 코로나 사태에서 점차 회복하면서 전력 수요가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요를 공급량이 따라잡지 못하면서 전력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 부족 현상이 계속되면 인도도 중국처럼 공장 가동을 제한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생산에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이는 곧 전 세계 공급망 위기를 더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것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오르자 제조 단가를 맞추기 힘들어 아예 생산을 중단하는 업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은 물건을 구하기도 힘들고 물건값도 너무 올라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비상"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마비됐던 세계 경제는 국제 사회의 적극적인 백신 접종 노력과 함께 올해부터는 잔뜩 기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난데없는 공급망 위기로 세계 경제가 회복 경로를 이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일각에서는 게임기나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의 공급 차질로 여겼는데요. 하지만 공급망 위기가 인력 부족, 에너지, 원자재 가격 인상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어, 단시간에 해결 방안을 찾기는 힘들 거라는 관측입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도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10월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9%로 잡았는데요. 이는 지난 7월 보고서 전망치보다 0.1%P 내린 겁니다.

IMF는 특히 선진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많이 낮췄는데요. 미국은 7%에서 6%로, 독일은 3.6%에서 3.1%로, 일본은 2.8%에서 2.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3개월 만에 하향 조정한 이유로 미국과 독일의 경우, 공급망 차질 문제를, 그리고 일본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회복 둔화를 주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공급망 위기로 경제에 타격이 예상되는 건 제조산업의 선두주자인 중국도 비껴갈 수 없습니다. IMF는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8.1%에서 8.0%로 0.1%P 낮췄습니다.

또 최근 화물 운송 대란을 겪은 영국도 7%에서 6.8%로 내려가는 등 코로나 위기를 간신히 벗어난 세계 경제에 다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VOA 박영서 기자 /21-10-15
(VOA Korea 전재허가 03.17.2014)

The Wall Street Journal은 10월28일 신문에서 LA와 Long Beach항구에 입항을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화물선이 73척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VOA Korea 전재

‘오징어 게임’ 세계적 돌풍…” 한국의 최신 문화 수출품”

안소영
VOA 뉴스 기자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83개국에서 시청률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기회 상실에 대한 절망감을 잘 표현해 낸 문화 수출품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녹취: 드라마 효과음]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삶의 벼랑 끝에 서 계시는 분들입니다.”

시청률을 집계하는 83개 국가 모두에서 1위를 기록한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한 장면입니다.
이 드라마는 빚에 허덕이는 참가자 456명이 상금 456억 원, 미화 3천811만 달러를 두고 벌이는 ‘생존 게임’ 이야기입니다.
모두 6번의 게임이 진행되는데, 매 게임에서 탈락자가 생길 때마다 공중에 걸린 커다란 돼지저금통에 1인당 1억 원씩이 적립되며 최후 승자 한 명이 전체 상금을 획득하는 방식입니다.
탈락자는 온라인 게임 속에서처럼 총에 맞아 숨지며 쉽게 사라지고 맙니다.
게임의 승패로 삶과 죽음이 결정되지만 현실로도 돌아갈 수 없는 절박한 심정의 참가자들은 456대 1이라는 확률을 알고도 자발적으로 게임에 참가합니다.
이 드라마는 단순한 게임을 통해 오히려 현실 사회를 더욱더 날카롭게 풍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목숨 건 승부를 가리는 게임들은 옛날 한국 어린이들이 즐기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달고나 설탕 뽑기’, ‘줄다리기’, ‘구슬치기’ 등으로 구성돼 아이러니함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드라마 주연을 맡은 배우 이정재 씨는 지난 9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삶의 벼랑 끝에 몰린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시청자들이 나름 자신들의 삶과 연결지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정재 씨] “각자의 사연들이 굉장히 깊고 또 아픈 사연들이 다들 잘 살아 있어서, 비슷한 소재의 서바이벌 이야기하고는 많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시나리오를 보고 느꼈어요”

이 드라마는 사회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계층, 약자들이 주요 역할을 맡았다는 점에서도 주목됩니다.
동생과 한국에 정착한 탈북 여성 ‘새벽’은 북한에 남아 있는 어머니를 데려오기 위해 브로커에게 준 거액을 사기 당해 게임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또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와 갈 곳 없는 치매와 뇌종양에 걸린 노인의 모습도 묘사됐습니다.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돌풍을 일으키자 한국 배우들 역시 국제적으로 큰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NBC 방송의 ‘더 투나잇 쇼 지미 팰런’은 이정재와 박해수를 비롯한 배우 4명과 화상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배우들은 인기 비결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동심을 불러일으키는 한국의 게임과 잘 표현된 인간의 탐욕과 본성을 꼽았습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오징어 게임’이 한국 사회에 자리 잡은 불평등과 기회 상실에 대한 절망감을 잘 표현해 시청자를 사로잡았다며, 한국의 또 다른 문화 수출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신문은 ‘한국 경제의 불안감이 ‘오징어 게임’이 주목받는 배경’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2019년 영화 ‘기생충’을 거론하며, 이 드라마 역시 경제 발전 뒤 심해진 부의 불균형에 대해 주목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소재는 비단 한국에 국한된 것이 아닌 만큼 미국 등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도 공감을 받으며 전 세계 시청자를 확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빈부 격차 등의 어두운 소재를 어린이들의 전통 놀이를 통해 참신하게 풀어나가며 현실을 비판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징어 게임’ 의상이 올해 할로윈 복장으로 큰 인기를 끌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운동복에 번호만 붙이면 준비를 끝낼 수 있어 준비할 시간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포브스’는 기이하고 매력적인 넷플릭스 작품 가운데 하나라고 소개했고, ‘뉴욕포스트’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드라마의 긴장감을 더욱 높였다고 전했습니다.
(VOA Korea 전재허가 03.17.2014)

기독일보 전재

해외 목회자가 본 '오징어 게임'… "명석하고 계시적이며 위험"

이미경
기독일보 기자

스코틀랜드 개혁교회 목회자이자 호주 제3공간(Third Space) 책임자인 데이비드 로버트슨(David Robertson) 목사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감상평을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게재했다.

그는 "올해의 TV 센세이션이다. 모두가 이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하고 관련 이미지가 도처에 있다. 약간 과장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그러나 약간일뿐이다.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스릴러 '오징어 게임'은 정말 게임 체인저"라고 했다.

그러면서 "극도로 폭력적인 것은 내 취향에 맞지 않지만, 이것은 달랐다. 난 오징어게임이 명석하며 계시적이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라고 글을 시작했다.

데이비드 목사는 "오징어 게임은 반자본주의적 비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이라며 "이 드라마는 상위 20%의 순자산이 하위 20%의 순자산의 166배인 한국의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많은 청년들은 가정을 꾸릴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출산률은 낮아지고 있다. 부채는 한국에서 자살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의 103%로 아시아에서 가장 높다. 부채, 도박 및 기업의 탐욕으로 인해 사람들이 사고 팔리고 비인간화된다. 슬프게도 너무 현실적"이라고 했다.

데이비드 목사는 '오징어 게임'의 폭력성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폭력)과 관련된 두 가지 위험이 있다. 첫째, 참가자들처럼 우리도 폭력에 익숙해지고 현실에 무감각해지기 쉽다. 오락으로서의 폭력은 참가자뿐만 아니라 관음증 환자에게도 비인간적이며 잔인한 행위다. 이것은 1세기 콜로세움의 21세기 버전과 같다. 배우들은 죽지 않았지만 유흥을 위한 폭력은 안타까움을 자아낸다"라고 했다.

이어 "둘째, 모방의 위험이 있다. '오징어 게임'은 확실히 어린이용이 아니지만 오늘날의 인터넷 세계에서는 많은 어린이들이 시청할 것이다. 문제는 그들이 진행되는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이해력이나 성숙도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부 성인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이고 수용 가능한 것으로 묘사되는 것을 보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다. 그들은 심지어 그것을 모방할 수도 있다. 벨기에의 한 학교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처형이 아니라 패자에게 펀치를 날리는 '빨간불, 초록불' 게임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미 경고를 내렸다"라고 했다.

데이비드 목사는 '오징어게임'에서 묘사된 기독교에 대해서 "서양인들에게 놀라움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으로 대표되는 교회의 성장, 개신교 직업 윤리가 한국 경제의 기적에 끼친 역할, 부와 권력에 의한 교회의 부패는 현대 한국인들의 삶에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이 드라마는 기독교에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목사인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딸의 마음 아픈 이야기를 떠올려 보라. 그녀는 용서를 빌며 끊임없이 기도하는 남자가 또 다른 살인 게임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조롱한다. 그녀는 '기도가 무슨 소용이야?'라고 묻는다. 사실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고 영성은 게임의 일부가 아니"라고 했다.

또 "오징어게임은 도덕을 말하지만, 답을 주지는 않는다. 그리고 코로나 19, 기후 변화, 문화 전쟁 속에 빈부가의 격차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오늘날 우리 세계를 과장되게 묘사한 정확한 그림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오징어게임이 기업 자본주의의 큰 대표들을 작품의 악당으로 그리고 있지만, 넷플릭스 자체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라는 것이다. 오징어게임은 가난한 이들의 죽음을 부자들의 유흥거리로 삼는 세태를 한탄하지만, 이 드라마 자체가 정확히 그렇다. 3천만 달러의 제작비가 들어간 오징어게임의 가치는 현재 13억 달러에 이른다. 가난, 포르노, 폭력은 돈이 된다"고 지적했다.

<13페이지로 계속>

수필

새로운 단어

이 정 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수필가

한 단어가 때로는 한 시기를 분명히 규정해 준다. Merriam Webster의 온라인 사전이 집계한 바에 의하면 사람들이 2020년에 가장 자주 찾아본 단어는 'pandemic' 이었다.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전염병이라는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단어의 공식적 정의가 중대한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며, 연초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질병이 무섭게 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바람에 도대체 어떤 병인가를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팬데믹은 전형적으로 여러 국가나 대륙에 걸쳐 돌발하여 다수의 사람이 걸리는 질병을 일컫는다.

COVID-19는 새로운 낱말도 만들게 했고, 드물게 쓰이던 낱말을 자주 쓰이게도 했다. 세상이 온통 바뀌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국제 사회에서 공통으로 통용되어 국제어로서의 성격이 강해진 영어권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언어에 미친 영향을 보면, 상상도 못했던 재앙에 직면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불안에 떨며 허둥대던 때가 돌아봐진다.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아 모두의 안전을 도모하자고 당국에서 내린 지침이,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모두 문을 닫게 했다. 그 조치는 아주 넓게 적용되어 shutdown (임시 휴업 또는 조업 정지) 이나 lockdown (엄중한 감금) 이라고 불렸다. 전에는 어쩌다가 간간이 보이는 단어들이었는데, 2020년에는 아주 흔히 사용되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 (social distancing) 는 전염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한 가지를 뜻하는 명사로, 보건 당국이 일반으로 하여금 지키도록 권장하는 안전한 공간이었다. 자기 가족이 아니거나 안전 지대에 속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과는 접촉하면 안 되는 것은 물론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하는 거리였다. 새로운 말은 아닌데, 몹쓸 병이 돌아댕기는 동안 사용 빈도가 무려 400퍼센트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고가 놀랍다.

고성능 (super) 과 흩어져 번지는 것 (spreader) 을 뜻하는 두 단어를 합쳐 만든 단어 superspreader는 명사나 형용사로 쓰인다. 다수의 사람에게 널리 전염병을 퍼뜨린 사람이나 사건을 가리키는 이른바 '고성능 전파자' 이다. SARS-CoV-2는 감염되어 증상도 나타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바이러스이었다. 팬데믹 중에 아기의 돌잔치에 친가며 외가 사람들이 모였다가 여덟 명이 한꺼번에 감염된 예도 알려졌는데, 그 파티가 바로 superspreader다.

격리라는 뜻의 quarantine과 마티니 martini가 합쳐져 quarantini 라는 새로운 단어가 되었다. 술꾼들은 몇 가지 양주를 적당히 섞고 향료나 설탕을 첨가한 다음 얼음을 넣어 혼합한 칵테일을 즐겨 마신다. 마티니는 진이나 보드카에 쌉쌀한 맛이 나는 베르무트나 오렌지 비터스를 타고 레몬 껍질을 곁들이는 칵테일의 일종이다. Quarantini는 재택 근무나 록다운으로 감금된 생활을 하는 중에 심신의 어려움을 덜어 보려고 마시는 술의 이름이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사람들의 시간 개념을 흐릿하게 해주었다. 요일들의 특성이 희미해져서 오늘이 무슨 요일인가를 분명하게 가리기 어렵게 만들기도 했던 것이다. Blursday는 월 · 화 ·수 ·목 ·금 ·토 ·일 어느 날에도 들지 않는 날이다.

Bubble은 고체나 액체의 내부에 기체가 들어가 거품처럼 둥그렇게 부풀어 있는 기포를 뜻하는 단어다. 팬데믹 중에 전미 프로 농구 협회 NBA가 선수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일반인들과 접촉하지 못하게 '안전 지대' 를 만들었다. Bubble은 동일한 규칙이나 행동의 표준을 따르는 작은 그룹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사람을 깔보아 업신여기는 단어도 만들어졌다.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으려고 채택된 건강과 안전 수칙을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Coronavirus와 idiot (멍청이) 에서 따서 지은 단어 covidiot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카렌사람은 태국의 서부와 미얀마의 동남부에 분포한 산지 민족이다. 단어 Karen은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지에서 여성에게 주어지는 퍼스트 네임이기도 하다. 영어권에서 그 이름을 쓰는데, 언제부턴가 자기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백인 여자를 지칭하는 경멸감을 가진 단어가 되었다.

2020년에는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지침을 자기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멋대로 행동하는 여자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다행히 2020년 말에 예방 주사가 나와 많은 사람들이 서둘러 주사를 맞았다. 바이러스가 횡행하는 것을 막아 세상 사람들이 걱정을 덜하며 살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도 한사코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무방비 상태라서 쉽게 바이러스의 표적이 된다는 뜻으로, 그런 사람들을 sitting duck라고 부른다.

언어는 사상이나 의도 또는 감정 따위를 표출하거나 의사를 전달하는 데에 쓰인다. 언어의 사용은 인간 고유의 행동이며, 말하기 · 듣기 · 쓰기 ··읽기 네 가지로 표현된다. 시간과 함께 성장하고, 쓰지 않으면 소멸해 버리는 것이 언어다. 사람이 사는 동안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사람의 사고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를 흔히 생명을 가진 것으로 본다.

말은 시대의 상황을 반영한다. 지난 2011년에는 sheeple이라는 단어가 사전에 올랐는데, 면양 (sheep) 과 사람 (people) 에서 따 만든 단어로 이모저모 살피지 않고 덮어놓고 남의 말을 믿는 사람을 가리킨다. 해마다 새로운 단어나 어구들이 세계 유수의 영어 대사전에 떳떳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이 남긴 말들도 틀림없이 대사전에 오를 것이다.

<해외목회자가 본 '오징어 게임' 11페이지에서>

그러면서 "재미를 위한 폭력, 가난한 자와의 도박, 성적 착취, 빈부격차의 증가 등으로, 이 드라마 시리즈는 기독교 이전의 그리스-로마의 이교도적 세계관으로 퇴보하고 있는 21세기 이후의 문화를 묘사하고 있다. 지옥이라는 적절한 제목의 2편에서 참가자들에게는 게임을 그만둘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 이를 위해 약간의 과반 투표가 나왔지만, 그들 중 93%가 다시 돌아온다. 그들은 게임의 지옥 또는 현실 세계에서 깨어진 인간관계로 가득한, 오랜 가난에 찌든 삶의 지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답은 없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는 "과도한 기업 자본주의에 대한 답은 공산주의가 아니다. 공산주의가 가져다 주는 기쁨을 알려면 북한을 보라! 우리가 어떤 경제 체제를 이용하든 기독교적 가치가 필요하다. 폭력에 대한 해답은 그 이상의 폭력이나 전쟁을 준비하며 이야기하는 평화가 아니다. 진정한 샬롬인 평화의 왕을 알 때 알게 된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문화 엘리트들이 '인간이 무엇인지' 말해주지 못하는 세상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절실하다. 이 시리즈의 가장 좋은 대사 중 하나는 참가자 중 한 명이 '너희들은 말과 같다'는 소리에 '난 말이 아니다. 난 인간이다'라고 대답하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무엇이란 말인가? ' 우리는 하나님 형상 안에서 평등하게 지어진 남자와 여자'라는 성경의 답은 다양성, 평등, 긍휼함, 그리고 인류라는 모든 위대한 '진보적인' 덕목의 기초가 된다. 우리가 이를 거부하면 오징어게임으로 끝난다"고 했다.

데이비드 목사는 "위선적이고 오만하며 공허한 기독교의 문제들에 대한 답은, 기독교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더 포용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단순한 우리의 게임의 목표를 위한 소품으로 이용하기보다 그분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알고 섬기는 기독교의 더 많은 부분이 필요하다. 오징어게임은 타락한 인류에게 큰 필요를 상기시킨다. 우리가 모든 인간의 마음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악의 바이러스를 어떻게 다룰 수 있나? 마지막회에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팻말을 들고 외치는 거리 전도사가 나온다. 이는 기독교인을 조롱하는 영상이지만, 궁극적으로 그것만이 유일한 선택이다. 모종의 지옥에 있는 이들, 그 길로 향하는 이들에게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피할 수 없는 오징어게임 2편의 엔딩 크레딧 영상을 보면서, 적절한 결말로 예수님 말씀의 인용을 제안하고 싶다"며 다음 성구를 덧붙였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눅 4:16~19)

[출처] 기독일보 2021.10.21.
(전재허가 2021.10.24.15:44 jykim)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08608

미 국내 소식

사회보장연금 대폭 오른다

10월13일 연방 사회보장국(SSA)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생계비 조정치(COLA)'에 따라 연금 생활자와 저소득층 생계보조금(SSI) 수혜자 약 7000만 명이 5.9% 인상된 연금과 보조금을 받게 된다고 발표했다.

국내 여러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는 지난 1982년 이후 최대폭 인상이다.
이에 따라 6,400만 명이 넘는 사회보장 수혜자(Social Security beneficiaries)는 내년 1월부터 현재 월평균 1,565달러에서 92달러 오른 평균 1,657달러를 받게 되며, 부부는 현재 월평균 2,599달러에서 154달러 오른 평균 2,753달러를 받게 된다.
약 800만 명의 추가 보장 소득 수혜자(Supplement Security Income recipients)는 오는 12월 30일부터 개인은 현재 월 794달러에서 841달러로, 부부는 1,191달러에서 1,261달러로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된다.

한편, 6.2%(자영업자는 12.4%)의 사회보장세가 부과되는 소득 상한선은 올해 14만2,800달러에서 내년엔 14만7,000달러까지 오른다.
1.45%(자영업자 2.9%)의 메디케어 세금은 소득 상한선 없이 부과된다. 오히려 연소득 개인 20만 달러, 부부합산 25만 달러 초과분에 대해서는 0.9%의 메디케어 세금이 추가된다.

한국 소식

누리호: 첫 한국형 발사체, 우주로 첫 걸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한 첫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II)' 가 지난 10월 21일 오후 5시 전남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어 비행과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했으나, 3단에 장착된 7톤급 액체 엔진이 46초 가 부족한 475초 만에 연소 됐기 때문에 위성 모사체(더미)를 지구 괘도에 올리는데는 실패했다.

2013년 발사에 성공했던 '나로호'는 러시아 기술의 엔진으로 발사했으나, 이번의 '나로호'는 12년에 걸쳐 순수 한국 독자기술로 개발하여 발사를 한 첫 우주발사체다.

누리호는 엔진 설계부터 제작, 시험, 발사 운용까지 모두 국내 300개 기업이 참여해 완성했으며 연구인력은 250명이 동원됐고 누리호에 사용된 부품은 38만 개에 달한다.

한국은 러시아,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인도, 이스라엘, 이란, 북한에 이어 열 번째로 발사체 기술을 확보한 나라가 된다. 목표 궤도에 인공위성 투입을 성공하면 미국, 러시아, 유럽, 일본, 중국, 인도에 이어 일곱 번째로 1 ton 이상 실용급 위성 발사가 가능한 나라가 된다.

누리호 사업을 이끌고 있는 고정환 한국항공 우주연구원(항우연) 한국형 발사체 개발 본부장은 "항우연의 많은 분들이 거의 끝까지 노력하고 있고 마지막 계단 하나가 남아있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내년 5월에 (있을 2차 시험발사에) 성공시킬 수 있도록 격려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누리호 발사식에 참석했던 문 대통령은"자랑스럽습니다. 아쉽게도 목표에 완벽하게 이르지는 못했지만, 첫 번째 발사로 매우 훌륭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라는 소감을 말하며 연구원과 관계자 여러분을 격려했다.

칼럼

대면 속회를 시작하다

김기천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그동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강제로 고립된 생활을 해오다가 점차로 교회 대면예배가 허용되면서 주일 예배가 코로나 이전 모습을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점심 식사를 나누는 친교 모임도 점차 이전 모습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일반 식당들도 정상화 되면서 이제는 여러 사람이 식탁에 모여 앉아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 내에서는 코로나 이전처럼 대면 속회를 가지자는 의견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7일 주일 예배 후에 그동안 속장이나 인도자로 수고하셨던 분들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모임에서 코로나로 인한 지난 일 년 반 동안의 속회 상황들을 점검하고 이어 대면 속회를 재개하자는 결정을 하였지요. 그럼에도 여전히 뉴스 첫 부분에는 코로나 감염자와 사망자 숫자가 언급되고 있기에 조심스럽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대면 속회를 가질 수가 없어서 Zoom으로 대체해서 모임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은 속도원들이 많은 속회에서는 Zoom 모임을 갖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이런 속회는 일 년이 넘도록 속회를 못 가진 셈이지요. 직접 만나서 모임을 갖는 대면 속회를 재개하게 되면서 감리교 속회의 본질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교단에서는 "구역 예배"라고 부르는 것을 감리교회에서는 "속회"라고 부릅니다. 교회 내에 소그룹 모임이지요. 감리교회의 "속회"는 개신교단 가운데에서는 최초라고 볼 수 있는 소그룹 운동입니다. 전통적으로 예배라 함은 소속된 교인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1703-1791) 목사님께서 감리교 운동을 하시던 초창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모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지요.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감리교 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을 소그룹으로 나누어 신성클럽(Holy Club)과 속회(Class Meeting)로 조직하였습니다. 모든 교인들을 각 속회에 속하도록 조직한 것입니다. 속회에 한 구성원이 되어야 비로소 정식으로 교인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속회라는 소그룹은 감리교의 기본 단위인 셈입니다.

초기 감리교 속회 구성원은 주로 12명에서 최대 20명까지였습니다. 속회 모임은 일주일에 한번 씩 개인 집에서 만나 저녁 8시에 시작했습니다. 속회의 리더인 속장은 먼저 지난 한 주간 자신의 신앙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속도원들 역시 생활 속에서 신앙적으로 승리한 일 또는 실패한 일 등을 함께 나누었지요. 속회를 모일 때마다 속도원들은 자신의 생활 문제나 갈등을 나누면서 각자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형식적이거나 미지근한 모습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함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치유와 회복을 간구하였지요. 그리고 축도와 헌금 시간으로 속회를 마쳤던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속회라는 소그룹을 조직한 목적은 속회를 통하여 속도원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삶이 변화되는 데에 있었습니다. 예배나 성경공부를 통하여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시킴으로 신앙과 생활을 일치시키고자 속회를 조직한 것입니다. 속도원들은 속회를 통하여 개인적으로는 신앙이 성장하고, 속도원들 끼리 깊은 신뢰를 형성하며, 영적으로 서로 섬기는 도를 배웠던 것이지요.

대면 속회를 시작하면서 속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흩어졌던 속도원들이 대면 속회를 통하여 다시 모여서 영적으로 회복되고 삶이 변화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칼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정용
뉴져지연합감리교회
은퇴 감리사

청명 이란 말을 설명하려는 듯 맑은 날씨가 계속입니다. 일 년 내내 쌓였던 먼지들이 말끔히 씻겨진 듯 맑고 깨끗합니다. 성경을 상고하듯 쌓일 때가 있고 씻겨질 때가 있음을 눈으로 보며 사니 한결 분명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원을 웅변하듯 살라 하시는 것 싶습니다.

거의 3년 전쯤 되었나 봅니다. 아내에게 난데없이 통풍(Gout) 이란 것이 와서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그것으로 고생하니까 좀 강한 약을 먹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게 젊을 때였으면 그깐 좀 강한 약이라도 어지간히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 그 회복되는 속도가 느려져서 이겨내는데 인내를 가지고 길어지는 시간을 버티어야 되는 거였지요.

통증을 잊는 데에 좀 도움이 될까 해서 그를 꼬시다시피 해서 가까운 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보았지만, 남편인 내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 안타깝기만 하던 차에 툭! 번개처럼 머릿속을 치는 말씀이 있었으니, 출애굽기 4장 2절이었습니다.

말씀인즉, "...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이니이다..." 이것이었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내 손에 있는 것 곧 지팡이가 무엇일까? 오래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내게, 내 손에 있는 것! 그 지팡이는 과연 무엇이란 말일까!? 내가 아내를 도울 수 있는 묘안을 어디 다른 어떤 곳에서 찾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 ... 곧 그 말씀이었습니다.

네게 지금 있는 것이 무엇이냐? 화들짝!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미 일할수 있도록 준비시켜 놓으셨고, 그것을 바로 쓸 때에 그가 나타나심을 다시 기억케 하십니다. 나에게 이미 주신 그 말씀이 곧 내 손에 쥐어주신 지팡이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소년 다윗도 이 말씀(출 4:2)처럼 다른 데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손에 쥐어주신 조약돌로 통쾌하게 해결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를 엉뚱한 데서 찾으려 하였던 사울 왕과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지팡이'를 보지 못 하였던 것입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서로 대입해 보며 읽고 있었습니다. 대개가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쓰인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나라를 다스린 그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둘을 비교해 본다면, 그 동일한 역사를 보는 "관점" 이 서로 다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서는 주로 선민의 죄악사를 회고하며 반성하는 과거 지향적이며, 동시에 선지자적 관점에서 써졌기 때문에, 통렬한 비판과 회개의 촉구가 그 근본 기록 동기라 할 수 있는 반면에, 역대 기서는 비록 지난날 하나님께 패역하였으므로 인하여 징계와 심판의 회초리를 맞았다 할지라도, 한번 택함을 받은 백성은 결코 버리시지 않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언약을 새로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선민의식의 연속성을 확신시켜 줌으로 위로와 소망을, 힘과 능력을 주고 있는 다른 관점에서 써진 것입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제사장적 입장에서, 요즈음 말로 표현하면 목회자적인 관점에서 씌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여전히 율법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친다면 실상 그 말씀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내게 주시는 격려요 소망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을 때 때로 비참하기만 했던 자신이 비로소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며, 한참 부담스럽기만 했던 세상이 한번 살아 볼만한 기회로 적극 적이고 책임 있는 삶으로 변하게 되는 거지요.

말하자면 슬람미 여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온종일 뙤약볕 아래에서 고된 일만 하여 햇볕에 찌든 볼품없는 그 여인이 솔로몬 왕 으로부터 '이 귀한 자의 딸이여'라는 극찬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수많은 어여쁜 여인들에 싸여 있었던 솔로몬 왕이 그의 사는 모습에서 지극히 아름다운 '찌들지 않는' 확신을 사는 진실,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진실은 세상 권세자들도 하나님을 보게 하는 능력 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만고풍상의 고락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면 자연히 그 삶의 기준은 세상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는 이미 세상 이 줄 수 없는 신비한 권세를 살게 되는 것이니까요. 역설적으로 고된 삶이 오히려 '귀한 자'의 권세를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랍니다.

아내의 눈빛이 살아납니다. 아픔을 겪는 관점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이 삶의 대로를 인도합니다. 이 통증이 주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던가 봅니다. 모세같이 이미 자기 손에 쥐어주신 지팡이를 보는 눈(관점)이 밝아진 모양입니다.

아플 수도 있고 또 말끔히 나을 수도 있지만 이겨내기 쉽지 않은 이런 고통들은 많은 경우 하나님을 만나게 해 줍니다. 거저 겪고 마는 고통은 없습니다. 부질없이 바쁘던 날에 가질 수 없었던 구별된 시간, 영원을 볼 수 있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예배에는 참석하고 싶지만 차편이 없어 곤란을 겪는 성도님을 돕기 위해 주일날 이른 아침에 자동차를 몰고 뉴욕으로 달려가는 자매님이 남겨 놓은 말, '하나님의 귀한 딸답게 살아야지요. 이 일을 하면서 제가 누구인지를,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를 더 잘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감사뿐입니다.'

또 하나의 슬람미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손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지팡이가 있음을 알고 감사, 감격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지팡이를 값지게 사용하는 자매님이었습니다. 그의 감사는 새로운 감사로 이어질 것이며, 그의 감격은 또 다른 감격으로 이어지는 영원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게 쥐어주신 지팡이를 꺼내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그곳을 찾아가는 감사의 계절, 은혜 풍성한 복된 계절 되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동시

참 잘했어요.

- 우리 누나 -

노여심

엄마 어디 갔냐?
– 시내 나갔어요.
뭐 하러 갔냐?
– 친구 만나러 갔어요.

엄마 어디 갔냐?
–시내 나갔어요.
뭐 하러 갔냐?
–친구 만나러 갔어요.

엄마 어디 갔냐?
–시내 나갔어요.
뭐 하러 갔냐?
–친구 만나러 갔어요.
오실 때 맛있는 것 사 오신대요.

같은 것 자꾸 묻는 할머니께
친절히 답해주는 우리 누나

자꾸만 사라지는 할머니 기억 안타까워
더 친절해진 우리 누나 예쁜 마음에
'참 잘했어요'
도장 하나 찍어줬어요.

〈노여심 작가소개〉 1962년 전북 장수에서 태어났으며, 1995년 〈한국아동문학〉 신인상으로 등단. 동시집 「햇살 좋은 날」, 「정말 잘 했어」, 「조금만, 아주 조금만」, 시집 「풋사과」, 「시보다 아름다운 당신」, 어린이 자기계발서 「말이 통하는 아이」, 「감정사용법51」, 「왜 공부해? 뭘 공부해?」 등을 펴냈으며, 경남 아동문학상, 마산예술공로상을 받았다. 열린 아동문학 2021 봄 (88)에서 전재

C&Mc
CUDDY & McCARTHY, LLP
Attorneys at Law
www.cuddymccarthy.com
우리 로펌은 1917년에 근간을 둔
다양한 분야의 법률대리를 담당하는
종합법률사무소로서 산타페와
알버커키에 사무실을 두고 있읍니다.
한국어에 능통한 노영준(Jun Roh)
변호사에게 연락 주십시요.
201 Third St. NW Suite 1300,
Albuquerque, NM 87102.
(505) 888-1335

수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

나정자
연합감리교회
은퇴 감리사 사모
/ 수필가

아침저녁 찬 바람에 찬란하던 갈잎들이 떠나는가 했더니 벌써 하늘이 훤히 보입니다. 군데군데 바람이 몰아다 놓은 무더기에서 풍겨 나는 갈잎 냄새는 여간 지나는 이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순식간에 엄하신 아버지의 헛기침 소리며, 노을 지는 싸릿문을 더듬어 보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 무성하던 잎들이 다 떠나고 난 까칠한 줄기 속을 흐르는 맥박소리는 그러나, 전혀 흔들림이 없어 보입니다. 노구의 의연함이 그때나 이때나 여전하여서 그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시부렁찮은 소리 함부로 못 하게, 자중케 하는 도도한 아우라에 한 줌 가슴 올 풀어지는 한 낮! '그냥' 이라는 말만 가슴속에서 우글거립니다.

그냥 서럽고 그냥, 그냥 그립고 그냥, 그냥 아쉽고 그냥... 그래서, 손에 잡힐 듯 잡힐 듯하는 매정한 시간들에 오히려 내가 잡혀온 양 내둥 여름 내내 피해 다니던 햇볕 아래에 얼굴 몰수하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모처럼 따끈한 가을 햇살에 안기다 보니 그동안 소식이 뜸해서 궁금했던 사람들, 또 그냥 머릿속에 옹골지게 새겨져서 함께 살아가는 씀직한 얘기들이 하나씩 둘씩 별처럼 떠오르곤 합니다.

사람이 다 제 코앞이 석자여서 제때제때 소식 전하며 살 겨를 없이 산다고는 하지만, 삶이 어디 다 그런가요? 모두들 어려운 시기에 형편이 풀릴 때까지 잘 견디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들로 사는 것이 다 우리네 인지상정이지 싶습니다. 무소식 속에서도 기억함으로 소식을 전하는 계절입니다.

어떻게 지낼까?
어떻게 변했을까?
또 한 해가 저무는데...
그래도 여전하겠지?
아니, 그래도 우리가 나누던 마음과 마음! 또 그 가치관은 여전하겠지?
다 소진된 것은 아니겠지?
여전히,
여전하겠지?

세계 제2차 대전중에 내 친정 어머니께서는 두 아들을 잃으시고 7 년 만에 나를 낳으셨고 오랜만에 낳은 딸이 귀해서 좀 일찍 유치원에 넣으셨답니다. 그때 그 충남 공주 성당 신원식 신부님은 우리 어머니의 열심히 많이 감동적이셨던가 봅니다. 내가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충청남도 공주에서 서울까지 그 엄청 추운 졸업식에 참석하여 주셨던 기억이 여태까지 내 안에 있어 함께 삽니다.

항상 맨발에 검정 고무신으로 우리들 국민학교 합창단을 신바람으로 이끄시던 권혁채 음악 선생님을 내가 새 새댁이 된 후에도 내 큰 시아주버님과 동료로 서울 경희 국민학교 선생님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 어떻게 생각이나 해 볼 수 있었을까!

이것들은 엊그제 카카오톡으로 받은 귀여운 한 컷이 불러 낸, 엉뚱한 내 옛날 얘기 중 하나입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어릴 적 얘기들이지만 무릇 사람이 산다는 것은 그리 정확한 계산으로나 그저 단편적인 것이 결코 아님을 상기시켜 주려는 듯 가끔씩 '왱~' 쏘려는 벌처럼 나타났다 가곤 합니다. 계속 더 얘기들을 불러내는 그 컷은 멜빵 청바지를 입은 네댓 살 나 보이는 두 사내아이의 대화였습니다.

한 아이가 묻습니다.
"너네 친척중 유명한 사람있니?"
쑥스럽고 수줍은 듯 고개를 푹 숙인 다른 아이의 대답
"글쎄, 뭐 자랑하려는 건 아니지만, 울 아버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더라"

그것이었습니다. 이때다 싶게 내 속에서 우글거리던 얘기들이 생기를 얻은 듯 터져 나옵니다. 그냥 듣고

지나 버릴만한 얘기이지만, 그러나 가히 역설적이요 혹 지나온 과거사들의 아픔이 엉겨있는 경우에는 더 쉬이 지워지지 않나 봅니다. 옹졸한 것 같지만 아픈 과거를 잊는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래 지내다 보면 그런 것들도 삭아져서 교훈을 주는 경우도 많으니 크게 자책할 일도 또한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두루 신학교(Drew Theological School) 라운지에는 한아름 소쿠리에 찌그러지고 움푹 파인 못 생긴 사과들이 등장하곤 했습니다. 상품이 될 만한 것들은 잘 포장되어 시장으로 출품되는 것이었지만, 그 춤에 끼지 못 하는 것들은 하나님 사역에 헌신하겠다고 나선 신학생들 몫으로 살그마치 누가 볼세라 놓고 가시는 과수원 아저씨의 "한 가족" 개념이 얼마나 쿵! 메시지였는지 모릅니다.

찌그러지고 못난 것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흉허물 없는 가족이라야 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는 "한 가족" 이라는 선포요 응원이었습니다. 가족이란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둥지요 어떤 두려움도 초월할 수 있는 힘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유이니까요. 신학교 옆 기숙사에 살고 있던 신학생들의 왁자지껄 꼬마들까지 '풋밤구리 쥐 드나들듯 한다'를 연상케 하는 찌그러진 사과 축제에 한 몫하던 광경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문예지 "정신과 표현" 2006 56권에는 아뿔싸! 시절첨지(시대를 이해 못하는 양반) 들의 얘기가 그럴싸한 뼈 있는 풍자로 실려 나왔었습니다.

... 세상의 식자들이 공맹은 다 알아도 '심조불산 호보연자'는 모르리니... 천씨 영감 허리 휘도록 새벽 들판 밤산 헤매어 반열에 들었더니 갓 끈조차 휘날린다. 고을 양반 잔칫상에 초대는 받았건만 공자 맹자 가로왈에, 시경 서경 주고받는 데에 열이 오른다. 백성들은 기근에 발바닥 다 찢어지는데, 배부른 저 식자들이 제 마땅한 기본은 아는 걸까? 천영감 귓불이 짧아 말문 닫고 씨부렁 거린다… 이 놈을 꼬드기면 저놈이 토라지고 단 둘이 만날 길목 여섯 갈래길, 아랫돌 빼서 웃돌 괴는 양극화 숲 우거지니 삼천리 수려 강산 나느니 떼부자로다. 차라리 갓끈 풀고 망건 벗어 버릴까나. 천영감 벌떡 일어서 잔칫집 문 박차고 나가면서 대성일갈 세로 왈짜 외치는 말, '이놈이 한 수 이르니, 심조불산 이면 호보연자 니라' 했더라나...

그렇습니다. "산불조심 이면 자연보호" 가 저절로 된다는 말입니다. 산불조심만 해도 자연보호가 된다는 얘기인데. 과연 공맹에 해박한 식자들에게 이 쓴소리가 들렸을까! 과연 그중에 이 말을 알아들은 식자가 있었을까? 과연 있었을까?

천 영감이 그러했듯이, 사람은 원래 똑같은 상황이 아닌, 여상치 않은 상황에서 전에 보이지 않던게 보이고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던가요. 별도리 없고 숨 막히는 고생 끝에라야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리게 되니 이것이 곧 낙이라는 것입니다. 애통할 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애통하는 자는 강한 사람입니다. 곧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입니다.

요즘엔 살기가 어려워져서인지 쪼끄만 사소한 자극에도 살기 돋은 폭발적 헐크로 변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널려서 오죽하면 온 세상이 분노조절 장애를 앓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판인데, 그 움푹 파이고 찌그러진 못생긴 사과가 해마다 찾아와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 한마디에 가슴이 울컥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 한 마디의 말이 어떤 다급한 이의 가슴에는 삶을 움직이는 웅변이요, 지치고 피곤한 이에게는 노를 푸는 첩약이 되는 것을! 거들먹거리는 가로왈이 갈라놓는 가족을 못생기고 찌그러진, 불타는 사과들이 다시 일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 가족이라고!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맘때면 해 지는 갓길에 켜지는 주마등처럼 연이어 생각나는 일들이 많아져서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길어집니다. 어쩜 이런 현상을 기능 저하 세대들의 보편적 특징이라 하는 것인지? 그럴지라도 분명 지난 삼백예순 닷새는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서도 또 한바탕의 잔치였습니다.

...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사야 61:1-2)

를 알량할지라도 애써 나누는
잔치였음을 감사하면서 아듀 ~

평안을 빕니다.

영어상식 시리즈

영어이야기 17
What good is math?

이상목
전자공학 은퇴 교수
아마추어무선사

"What good is math?"(수학의 어떤 점이 유용한가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수학에 대해 많이 하는 질문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을 배워서 어디에 써먹을 수 있는지, 하기 싫은 수학에 불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How you teach math today will determine your students' success tomorrow." (학생들에게 어떻게 수학을 지도하는 것이, 장래의 그들의 성공을 가늠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학을 배우면 일생에 걸쳐 닥치게 되는 문제를 헤쳐나가는데 필요한 논리적 사고능력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math"는 "mathematics"의 구어체로서, 문어체로도 부담 없이 사용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수학적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재능을 살리는 것은, 하고 싶다는 욕구(motivation)와 실생활과 연관된 실질적인 문제의 연습에 달려있습니다. 학교에서의 수학 수업이 잘 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기호를 쓰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수학은 추상적인 것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추상적인(?)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는 자연현상과 여러 법칙 들을 말로서만 나타내는데 무리가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었던 아내의 초등학교(elementary school or grade school) 4학년 수학 시간을 필자가 참관한 적이 있었는데, 그날 학생들이 대했던 영어단어들을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 일(1) 세대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영어단어들을 알고 있으면, 방과 후 아이들 과제물을 돌보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참관한 날은 도형에 관한 것으로, 삼각형(triangle)과 사각형(quadrangle)의 여러 형태가 칠판 (white board: 하얀색의 board를 많이 사용함으로)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삼각형(triangle)으로는, "equilateral triangle (정삼각형)", "isosceles triangle (2 등변 삼각형)", "scalene triangle (부등변 삼각형)", "right-angled triangle (직각 삼각형)" 이 그려져 있었는데, 발음도 쉬운 편이 아닙니다. "right angle"은 90도 직각을 뜻합니다.
"equilateral" 의 " equi-" 는 "같은" 의 뜻으로 쓰이는 결합 사이고, "옆의, 측면"을 뜻하는 "lateral"과 합성하여, "equilateral" 은 "같은 변(등변)"을 뜻합니다.
"unilateral"은 한쪽면만의 뜻이기 때문에, 도로의 한쪽만 주차가 허용된 곳은 unilateral parking, 3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다변적"의 의미로 multilateral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Bilateral agreement는 두나라간 또는 두 당사 지간의 협정이 되겠습니다.
춘(추)분은 밤과 낮이 같으므로, "equinox" 라고 하는데, nox는 밤을 나태 내는 Latin어입니다. 우리말로 소야곡(小夜曲)으로 번역되는 nocturn 도 밤을 뜻하는 nox에 기원을 두고 있고, 북반구와 남반구의 가운데는 양극(북극과남극)으로 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고 해서, "equator", 즉 적도입니다.
한자어인 적도(赤道: 붉은 길)는 고대 중국에서 태양이 바로 위를 통과하는 지점을 천구에 빨간 선으로 그린 데서 유래합니다. South America의 Ecuador(에콰도르)는 적도상에 있기 때문에 나라 이름이 적도(equator)의 스페인어(Spanish)인 "Ecuador" 입니다. 수도는 "Quito"입니다.
좌변과 우변이 같을 때 사용하는 "="는 "equal"이 됩니다. "isosceles (아이사설리즈)" 는 두 변이 같은 "2 등변 (having two equal sides)"의 뜻인데 원래의 뜻은 "같은 다리(equal leg)" 라는 뜻입니다. "isometric (크기가 같은)", "isotope (동위원소)" 에서 보듯이 iso-는 "같은, 유사한" 의 뜻을 가진 결합사입니다.
미터법을 metric system이라고 하는 하는데, meter는 parking meter 에서 보듯이 잰다는 뜻입니다.
가스계량기, 전기계량기도 meter 입니다. 우리나라는 길이의 단위로 meter가 먼저 쓰였기에 meter의 원래 뜻에 다가갈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Metric system은 길이는 meter(m), 질량은 kg, 부피는 liter(l)에 기준을 둔 표준 도량형입니다
"scalene (스케일린)" 은 "세 변이 같지 않은 (having three unequal sides)" 의 뜻으로 삼각형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tri-"는 아시다시피 "3"을 뜻하는 결합사로서, 삼중주나 3인조, 3명의 가수로 구성된 Kingston Trio 를 들 수 있습니다. Illinois, Indiana, Wisconsin 3개 주를 관통하는 Chicago

의 Highway는 "Tri-state"라고 부릅니다. "tricycle" 은 세발자전거, 삼각법(함수) "trigonometry" 는, 구어체에서는 줄여서 "trig" 로 말하곤 합니다.

수학의 한분야인 기하학은 "geometry" 인데, "geo"는 땅, "meter"는 잰다는 뜻이므로, "geometry"는 옛날에 땅을 재는데서부터 시작하였기에, 오늘날의 기하학이 된 것입니다. "thermometer" 는 열을 잰다는 뜻이므로 온도계입니다. 원의 지름을 "diameter"라고 하는데, dia-는 가로질러(through)의 뜻을 가진 접두사로, 글자 그대로의 뜻은 가로질러 잰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름길은 shortcut이라고 합니다.

사각형 (Quadrangle) 으로는, "rectangle (직사각형)", "square (정사각형)", "trapezoid(사다리꼴)", "parallelogram (평행사변형)", "rhombus (마름모꼴)" 등이 있습니다. "Quadrangle" 은 "4"를 뜻하는 "quad" 와 "각(角)"을 뜻하는 "angle"이 합하여 "4 각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80번 Highway가 지나는 Mississippi 강을 사이에 두고 Illinois와 Iowa에 있는 서로 이웃한 4개의 근접도시를 "Quad cities"라고 부릅니다. 이 4개의 도시는 Iowa 쪽에 Davenport, Bettendorf가 있고, Illinois 쪽에는 Moline, Rock Island 가 있습니다.

Davenport에 인접한 LeClaire라는 곳에서 "Buffalo Bill's Wild West" show로 유명한 "Buffalo Bill Cody" 로 불리는 "William Cody가 태어났는데, 조그마한 museum이 있습니다. "Yellowstone" 국립공원 근처에, 그의 이름을 딴 Cody라는 도시에 가면 Buffalo Bill(William Cody)에 관한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Buffalo Bill 이 이끈 "Wild West" show 단원중에, 명사수(sharp shooter) 였던 "Annie Oakley" 가 있었는데, 유럽에서 공연했을 당시 지금의 독일인 Prussia 의 빌헬름 황태자의 입에 문 담배의 재를 맞추기도 했다는 미국 최초의 여성 스타 (female star)로서 이름을 날렸습니다.

Annie Oakley는 속어로 공짜 입장권을 뜻하는데, 입장할 때 검표원이 punch 한 표의 구멍이 그녀가 사용했던 카드의 표적과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카드를 공중으로 던지며 쏘아 맞추면 동그란 구멍이 생겼으므로).

"rectangle"은 "rect (곧은(straight))" 와 "angle" 이 합하여, 곧은 각도, 즉 직각 (right angle)의 뜻으로, 한 변의 각도가 전부 90°가 되는 직 4 각형을 뜻합니다. 큰창자의 끝부분은 구부러지지 않고 곧기 때문에, 한자어로 "직장(直腸)"이고 영어로는 "rect" 가 들어간 "rectum"입니다. "square" 는 정사각형을 뜻하니까, "a rectangle having four equal sides"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square" 는 수학에서 " 제곱"의 뜻으로도 사용되며, "square root( )"는 "제곱근"을 말합니다. " 평행사변형 (parallelogram)" 의 parallel은 "평행의" 뜻으로, "parallel bars (평행봉)", "the 38th parallel(38 도선)"을 들 수 있습니다. 마름모꼴 "rhombus" 는 위에 나온 단어들을 사용하여, 평행(平行)하는 두 변이 서로 같으므로 "an equilateral parallelogram"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수학자 Euclid (유클리드)는 "두 개의 평행선은 절대로 만나지 않는다" (Parallel lines never meet.) 고 했는데, 이 말을 Lobachevsky 란 수학자가 좀 더 수학적으로 표현하여 두 평행선은 무한대에서 만난다고 했습니다(Parallel lines meet at infinity.). 그런데 Riemann이란 수학자가 "There is no parallel lines." (평행선이란 없다), 즉 우리가 아는 평행선은 서로 만난다는 뜻인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구 적도 (equator) 상에서 두 사람이 적도와 직각으로 서로 평행으로 북쪽으로 가면, 북극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평행선이 만나지 않는 것은 평면 (平面) 기하학 (2차원)에서나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공(ball) 같이 생긴 지구 같은 3차원 구(sphere) 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언젠간 공간이 굽었다는 것도 쉽게 이해할 날이 오겠죠.

교실 칠판에 diagonal(대각선) 도 설명되어 있었는데, 가로질러의 뜻인 dia-와 각(angle)을 뜻하는 gonia와 합성된 말로, gonia는 원래 무릎에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무릎을 중심으로 아랫다리와 윗다리가 각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말의 Orthogonal은 "직각의, 직교하는"의 뜻인데 결합사 "Ortho"는 사용되는 곳이 많습니다. "Ortho"는 바른(正: right or correct), 곧은(straight, upright)의 뜻으로 뼈를 바르게 고치는 정형외과를 Orthopedics라고 하는데, 어린아이의 휜다리(bow leg나 knock knee)를 고치는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성형수술은 plastic surgery인데, 멀쩡한 얼굴을 뜯어고치는 성형수술은 cosmetic surgery, 나이가 들어 얼굴이나 목의 주름살 등을 없애주는 수술은 facelift(rhytidectomy)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재 기사

애국심을 담은 일제말의 한글교육

〈 '열린 아동문학' 2021년 봄호(통권 88호)에 재 수록된 글을 재수정한 글입니다. 〉

이경화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장로

나의 아버지는 일제 식민지 하의 불행한 시대에 태어나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 가난한 목수이셨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려운 집안을 위해 남의 소실로 들어가 불행한 삶을 사신 누님의 도움으로 생활하며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 그러나 늘 어려웠던 형편 때문에 일찍 홀로 된 누님을 제대로 도와드리지 못하는 것을 늘 마음 아파하셨다.

나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해방되기 전 어렸을 때의 일이다. 내가 가야 국민학교에 다닌 1, 2, 3학년 (1943~1945) 때의 일이다. 집에서 우리말만 했던 나는 학교에 입학하자 일본어로 가르치는 선생님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갈수록 읽고 쓰는 국어(일본어) 실력이 뒤처지자, 나중에 어머니께서 해주신 말로 알았지만 담임선생님이 가정방문까지 하셔서 집에서 일본말을 가르쳐주길 부탁했다고 한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 배화여중을 다니셨던 어머니 (최순애, 「오빠 생각」의 작사자)는 토셀리의 세레 나데, 솔베지의 노래 등을 즐겨 부르시던 당시에 쓰던 말로 하면 신여성이셔서 일어를 잘 가르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머니가 일본어를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못하게 하셨고 얼마 안 가 일본은 망할 텐데 일본말은 몰라도 된다고 하셨다. 아버지는 저녁이면 시간이 있을 때마다 집에서 나와 두 살 아래 동생 (창화)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셨는데 가르치시는 방법은 'ㄱㄴㄷㄹ'로 시작하지 않고 그냥 쉬운 단어를 하나씩 가르치신 것으로 기억된다. 제일 처음 가르쳐주신 단어가 '소', '말'이었다. 이어서 '어머니 아버지 누나' 등이었다.

'소'란 단어를 가르치시면서 소는 느리지만 힘이 세고 인내력도 있고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했다. 소는 사람에 비교하면 조선 사람이고 '말'은 빠르게 뛰는 동물이지만 인내력이 없고 힘도 별로 없으며 죽어서는 별 볼 것이 못되는데 (말고기는 우리가 먹지 않으니까) 말은 나라로 비교하면 일본과 같다고 하셨다. 우리 조선 사람은 소와 같아서 어려움이 있어도 잘 참고 견뎌 느린 거북이가 빠른 토끼와의 경주에서 이기듯이 소가 말을 이기는 날이 꼭 올 것이라고 하셨다. 말하자면 한글 교육에 앞서서 애국심 교육을 먼저 하신 것이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던 날은 잊을 수 없는 날이었다. 그때만큼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그 뒤에 본 일이 없을 정도였다. 후배 격인 젊은이들과 함께 태극기를 만들고 벽보를 써서 길에 붙이는 일을 하시면서 기뻐하신 모습이 생각난다. 인내로 잘 견뎌낸 소가 말을 이길 것이라 했던 비유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었다. 아버지를 따르던 젊은이들이 그때 여럿 있었는데 우리가 사자 아저씨라고 부르는 청년이 있었다. 뒤에 어머니를 통해 알게 되었지만 아버지를 따르던 그들은 반일 정신이 강한 젊은이들로 아버지를 비롯해 모두 일본 형사에게 감시를 받아오던 사람들이었다고 했다. 어머니는 특히 3월 1일을 전후해서는 감시가 더 심해져서 트집 잡힐 일이 생길까 봐 항상 불안하셨다는 얘기를 하시곤 했다.

아버지와 이분들은 해방 뒤 무정부 상태의 함안, 가야 지방의 치안유지를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며칠이 지나 학교 수업이 다시 시작되었을 때, 국어시간은 일본어가 아닌 우리말 한글 시간이 되었다. 1학년, 2학년, 3학년 할 것 없이 전 학년이'ㄱㄴㄷㄹ'부터 시작하는 1 학년 수준의 국어수업을 받았는데, 나는 아버지께서 몰래 가르쳐주신 한글 실력 때문에 배울

게 없었다. 해방되기 전 국어시간에 열등생이었던 나는 하룻밤 사이에 최우수 학생이 된 것이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당시 경기공업학교 교장이셨던 큰 이모부의 권유로 서울로 이사를 왔다. 해방 후 국어를 가르칠 교사가 마땅치 않고 또 학교 서무도 겸할 수 있어 아버지에게 적극 권하셨다고 들었다. 나는 아현국민학교 3학년에 편입되었고 4학년이 되어서도 국어시간에는 배우는 학생이 아니라 선생님을 돕는 조교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때 내가 그림을 잘 그렸는지 선생님은 국어시간이 되면 별 배울 게 없던 내게 교실 뒤의 칠판에 색분필로 그림을 그리고 동시를 하나씩 쓰게 하셨다. 선생님이 주신 첫 과제는 주간 소학생 잡지에 실린 「연」이란 동시와 연 날리는 소년의 그림이었다. 책을 보니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있어 선생님께 " 이 동시 저희 아버지가 쓰신 동시인데요~" 말했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그러면 너희 아버님이 「고향의 봄」을 쓰신 이원수 선생님이란 말이냐?"라고 물으셨다.

연
내 연은 하늘에 놀고
나는 언덕에 논다.
연은 가물가물 높이 떠서도
언덕에 서 있는 내 말 잘 듣고
나는 또 하늘을 날지 못해도
내연과 함께 공중에 논다.

하늘에서 새 세상
내려다보면
집집마다 국기
거리마다 애국가
해 저 물면 장안의 불이 또 좋아
저녁 바람 추워도 연은 날은다.

이 동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면서 나는 혼자 웃었다. "아! 아버지가 우리가 학교 운동장에서 연 날리는 것을 보시고 이 글을 쓰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그 이후로 쓰신 수많은 동시와 동화를 보면 집에서 일어나는 일, 이웃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소재로 삼아 쓰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작품의 소재가 어디 있었는지는 안다 해도 동시 속에 담긴 깊은 뜻을 안다는 것은 어려운 것임을 그 뒤 곧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사자 아저씨라고 불렀던 청년 그분이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왔다. 저녁을 드신 뒤 한동안 여러 가지 얘기로 언성을 높이시더니 화제가 동시 얘기로 돌아갔다. 이야기의 주제가 동시 「연」이었다. "하늘에서 새 세상을 내려다보면" 에서 "온 세상 내려다보면"이라고 해도 될 텐데 왜 ' 새 세상'이라고 했느냐, 라는 식으로 단어 하나하나를 트집 잡듯이 질문을 해나가는데 그에 대한 아버지의 답변이 너무나 놀라 웠다. 단어 하나하나에 우리가 생각 못했던 숨겨진 깊은 뜻을 거침없이 설명해 주시는 것이었다. 시에 서 말하는 '새 세상'은 일제 암흑의 세계가 끝난 해방된 새로운 세상이었고, '집집마다 국기, 거리마다 애국가'는 내가 연 날리던 아현동 거리가 아닌 함안의 8·15 당시의 해방의 기쁨에 젖은 새 세상의 장면이란 것도 그때 알게 되었다.

단순히 연 날리는 장면을 노래한 게 아니라 일본의 억압에서 해방된 나라의 기쁨을 노래한 동시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한 시간 이상 동시 한편에 담긴 뜻을 설명하시는 것을 들으며 내가 깨달은 것은 아버지는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글 속에 어른들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깊은 뜻을

1941년 마산에서 찍은 가족사진

글 속에 숨겨 두셨다는 사실이었다.

최근 금융조합 기관지에 친일의 글을 쓰신 것이 밝혀져 우리 유족은 너무나 놀라고 충격을 받았다. 독서회 사건으로 일 년의 형을 살았고 석방된 후 불온사상 요주의 인물로 일 년간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고생하던 때, 상사의 도움으로 금융조합에 복직했던 아버지는 알게 모르게 얼마나 압박을 받으셨을까? 짐작할 뿐이다. 해방의 기쁨을 노래하고 기뻐하시던 아버지, 보이지 않는 감시의 눈길을 의식하면서도 아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항일정신을 심어 주시던 분이 자원해서 쓰셨다고는 믿을 수가 없다. 문제의 친일 글 속에도 "나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글을 쓰고 있다"는 비밀의 코드가 숨어 있을 것만 같다.

글 이경화(이원수 선생 장남)

〈'대산문화' 2011년 여름호에 수록된 글, '열린 아동문학' 2021년 봄호(통권 88호)에서 재 수록〉

선교

에티오피아 선교를 끝내고 돌아와서

김광철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선교사

저희 부부는 2020년 9월 1일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부름을 받고 아프리카에 위치한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한 기독교 의과대학 (MMC)에 자원봉사자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의 사명은 학장으로써 코로나로 텅 빈 학교를 정리하고 코로나가 안정될 때 새로이 학교를 열고 운영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학교와 관련된 교회의 간절한 부탁을 갑작스럽게 받고 저희들은 알버커키 연합 감리교회의 선교사로서 코로나 전염병의 공포 속에서 선교의 길을 떠났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년 동안의 사역을 잘 마치고 2021년 10월 10일에 알버커키의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선교 기간 동안 저희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신 연합감리교회 여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교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이 기회를 통하여 제한된 공간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1. 주님의 임재하심

저는 47년 전 미국에 공부하러 온 후 33년 동안 의과대학 교수로서 비교적 순탄한 이민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나의 모든 것이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은혜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더 늦기 전에 남은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 할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봄에 아리조나 의과대학에서 은퇴를 하고 3일 후에는 에티오피아에서 6개월 동안 자원봉사자로 의학 강의를 하기 위해 처음으로 먼 선교의 길을 떠났습니다. 6개월 동안의 맡은 일을 잘 끝내고 무사히 귀국한 후 이곳 알버커키로 이사를 하여 본격적으로 은퇴생활을 즐기고 있는 중 갑자기 코로나 전염병이 온 세계를 휩쓸면서 2020년 봄에는 대부분의 공공시설이 문을 닫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제가 부름을 받아 학교를 재정립하고 코로나가 안정되면 곧 학교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주저하지 않고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님 및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자식들을 만나려고 계획했던 여행들을 모두 취소하고 아리조나에서

사진 #1: 2018년 8월 아디스아바바에서 3시간 떨어진 마을에 무의촌 진료를 따라 갔을 때 약 400명이 되는 "시골" 사람들이 진료를 받기위해 미리 기다리고 있는 모습

사진 #2: 당시에 건축중인 교회당에서 4명의 의사와 1명의 간호원과 1명의 약사 (본인) 와 2명의 보조원들이 현지인 통역들을 옆에 두고 환자들을 돌보아 주고 있는 모습

이사 와서 겨우 정리한 많은 집안 가구 및 물건들을 이번에는 알버커키 상업용 창고로 모두 이사를 하는 둥 마치 서둘러서 아프리카의 위험한 정글로 "피난"을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인구는 1억이 넘는 데 등록된 의사 수는 인구 1만 명에 의사 한 사람에 해당되는 지극히 미비한 의료시스템인 데다가 국립병원은 무료이므로 제가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마치 피난민 수용소를 찾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진 #1, #2) 하루 바삐 능력이 있고 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들을 길러내는 의학교육을 설립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를 목표로 삼아 의과대학의 바탕을 새로이 정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에티오피아의 젊은 학생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으로 믿고 도착하는 날부터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들이 끊임없이 찾아왔고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 정부를 필요로 하는 행정적인 일들이 계속 지연되었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텅 빈 학교에 능력 있는 학장팀을 만들 수 있었고, 현지인 교직원들과 자주 대화를 통하여 그들의 문화와 생활을 이해하는 데 노력했고 또한 그들이 학교의 중요한 사명과 목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설명하고 설득시키면서 학교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아디스아바바의 다른 의과대학들과의 대화의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인터넷을 이용하여 학생들과의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설치함으로써 학교의 새로운 방향을 직접 상의해 가면서 대화의 바탕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학장팀은 그동안의 교육내용을 검토하고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교육과목 및 강의 방식을 바꾸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함으로써 제가 맡은 의과대학교가 에티오피아의 모든 대학교 중에서 처음으로 정상적인 대면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허락을 받게 되었고 또한 학교의 여러 가지 중요한 행사들 (예를 들어서 입학시험, 입학식 및 졸업식)을 코로나로 대부분의 학교가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도 성공리에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진 #3 & #4).

저의 학장팀이 이룬 가장 큰 업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에도 불구하고 온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한 공동체가 되어 일 할 수 있는 바탕을 닦아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기적들이 시간에 맞추어 일어났고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래도 오로지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대부분의 기관과 사람들이 집에 갇혀서 사는 동안에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귀한 선물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사진 #3: 입학 시험을 치르기 위해 학교앞에서 수험번호를 받기위해 줄을 서 있는 수험생들. 코로나로 입학시험이 6개월 지연되었고 45명 정원에 232 명이 지원했다.

지난 선교 기간 동안에 일어난 수많은 기적과 같은 일 들을 다 얘기하자면 끝이 없고 동시에 지루하리라 생각되기에 이 기회를 통해서 저의 선교가 성공리에 끝난 "비결"을 피력해보려고 합니다.

2.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란 것은 없다

우리는 흔히 "우연" 이란 말을 자주 듣고 사용합니다. 제가 처음 에티오피아에 도착했을 때에는 코로나로 학교는 지난 4개월 동안 완전히 닫쳐 있었고 학교직원들도 정부의 지시 데로 학교는 일주일에 하루 잠깐 나와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문화를 거의 모르고 있는 저에게는 이런 상황에서 인수인계도 없이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 학교를 정상궤도로 운영해야 한다는 사명을 생각할 때 앞이 캄캄했습니다. 매일 기도를 하면서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제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고 그 소리는 매일매일 강하게 들려왔고 나중에는 아래와 같은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 코로나의 공포 속에서도 맡은 사명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즉, 코로나는 인류에게

순식간에 닥친 커다란 재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집에 갇혀서 살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코로나의 위험을 잘 이해하고 전염병을 피할 수만 있다면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 갇혀 살 동안 그동안 바쁜 생활 속에서 하지 못했던 중요한 일들을 비교적 여유 있게 차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모든 학교직원들에게 학교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상의하고 도움이 필요하니 학교에 즉시 출근할 것을 정중하게 요청했지만 에티오피아는 거의 20년 동안 공산주의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일에 대한 의욕이 많이 저하되어있고 쉽게 불평을 하는 문화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게다가 주위에서는 저의 방침은 분명히 실패하리라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외국인 봉사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순수한 봉사자로서 담대히 에티오피아에 온 이유들을 진지하게 글로 보내고 온 직원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되자 현지인들의 감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어서 하나 둘 저를 돕겠다는 뜻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동행하시면서 이곳을 서서히 변화시켜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제가 글을 쓰고 있는 바로 이 기회도 우연이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이번 선교를 통해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3. 한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 시간의 소중함

이번 선교 기간 중에 서울에서 홀로 사시는 어머님을 뵙기 위해서 서울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기회에 대학 동기동창들을 만나 보기로 했습니다. 8명의 동기중 4명은 중병으로

사진 #4: 코로나로 인한 여러가지 어려움속에서 23명의 졸업생들과 정부 교육기관의 지도자들과 아디스아바바의 주요 의과대학 학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사히 의과대학 졸업식을 치루게 되었다.

병원이나 집에서 장기간 누워있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슬펐습니다. 그중 한 명은 일 년 전에 생긴 교통사고로 거의 무의식 상태로 1년 동안 병원에서 누워있다가 지난 8월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귀국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거의 매년 서울 방문 때면 만나던 정다운 옛 친구들이고 모두가 경제적으로 풍부하고 자식들도 대부분 "성공" 한 친구들이었지만 이 세상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고 내일을 모르고 살고 있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을 새삼스레 느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나이에 상관하지 않고 현 상황에서 어떻게 사는 게 가장 현명하고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삶일까 항상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에티오피아에 있을 때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 또한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드셨고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서 의학 교육을 받고 있는 것도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에티오피아에 뿌린 밀알이 썩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벌써 1년 반 동안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전염병을 피한 다는 이유로 집에서 갇혀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허덕이는 반면 일부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혜택을 받는 등 여러 모고 심히 혼란한 세상이 되었고 과연 코로나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지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 온 인류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서 더 늦기 전에 지혜롭고 담대하게 어두운 "동굴"속에서 나와서 맑고 새로운 가을 공기를 실컷 마시면서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과의 나눔을 통하여 그동안 벌어진 틈 (gap)을 메꾸어 가면서 기쁜 마음으로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들을 충실히 함으로써 더 이상 코로나바이러스에 쫓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이러스를 쫓아 버릴 수 있는 세상으로 바꿀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 몸과 마음은 코로나를 통하여 더 강건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자비로우신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2021.10. 25.

편지

PLANO에 특이한 것들

김준호
Fairview교회, TX
장로

정들었던 고향을 두 번이나 떠나려니 눈물이 쏟아 지렸는데 참고 또 참으며 쓰라린 마음을 달래느라고 별 짓을 다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었음을 깨닳고 선한 길을 열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1/4 후퇴 때 저의 가족은 저의 집의 모든 것을 작은 아버지에게 맡기고 남쪽으로 피난하기 시작했는데 청단 남쪽에 있는 항남리에서 피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용매도는 남한 땅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안내원에게 돈을 주고 용매도를 통해서 강화도 아니면 인천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편지를 안내원이 저의 아버지에게 주며 준호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누구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회답을 써서 보내면서 “당신이 누구인데 우리 준호를 찾느냐" 고 했습니다. 몇 달 후에 답장이 왔는데 자기는 창호라고 하고 준호를 탈출시켜야 되겠다 고 회답해 왔습니다. 창호는 저의 3 번째 형님이었습니다. 큰 형님과 3번째 형님, 그리고 누님은 그 당시 청년이었기 때문에 저와 부모님들보다 먼저 남하했었지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큰 형님은 유엔 경찰 중대장으로 의정부 근방에서 일했고 셋째 형은 유엔 경찰관으로 큰 형님 밑에서 일했고 그 후 용매도에 첩보병을 파견시켜 우리 가족들의 탈출 작전을 세웠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준호 탈출 작전, 두 번째는 부모님 탈출 작전이었습니다.

용매도는 인민군이 장악하고 있던 육지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인지는 몰라도 그믐 때는 썰물이 되며 배 없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때를 기다려 안내원을 따라서 저수지를 조그마한 배를 타고 오밤중에 건너가서 썰물이 된 진흙 길을 몇 시간 동안 걸어가니까 안내원이 여기는 안전하니까 약 30분 정도 쉬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힘이 들어서 쉬는 동안에 잠이 들고 말았지요. 그런데 꿈에 용매도 에 있는 작은 형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용매도에 가서 어떻게 형님을 찾을까 하고 고민하던 중이라 그 섬에 가서 섬을 다 뒤져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새벽이 되어 동편이 훤해지기 시작하는데 용매도가 점점 또렷 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 구요. 저희 들 이 용매도 에 거의 도착하였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작은 형님이 저희들 오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깜작 놀란 저는 형님에게 달려가서 질문했지요. “형님이 어떻게 여기 나와 있는 것 입니까?” 형님 왈 “야 말도 말아라. 어제 밤 꿈에 네가 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기적 이라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지요. 두 번째 부모님들 탈출 작전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도 성공적으로 이루었고 큰 형님으로 부 터 인천으로 퇴각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우리들은 모두 인천으로 왔지요.

제가 이 story을 자부 (아들 준원이의 처) 에게 했더니 “ Our Lord worked for you and your old brother! Amen! “ 하더라구요.

이번에는 우리 내외가 고향과 같은 Albuquerque, New Mexico를 떠나 저의 딸 수희가 사는 Texas주, Dallas 근처에 있는 Plano로 왔습니다. 여기 Plano 에는 Albuquerque에서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몇 가지 가 있습니다.

우리 내외는 거의 매일 아침 조반을 먹기 전에 동네 한 바퀴 걷기를 하는데 대략 3000내지 5000 보 정도 걷습니다. 여기는 어느 집을 막론하고 잔디 없는 집이 없습니다. 특이한 것은 잔디가 집안의 Carpet처럼 잔디 잎이 아주 가늘 어서 Carpet 방석을 펴 놓은 듯한 인상을 주고 또 다른 잔디는 잎이 넓어서 보통 잔디밭이구나 알아보게 됩니다. 어떤 집은 얼마나 잘 가꾸어 놓았는지 부스럼 난 머리처럼 뚫린 데가 없어서 참으로 보기가 좋습니다. 어떤 집주인은 자기 잔디밭에 개를 데리고 나와 앉아서 산뜻한 아침을 즐기는 장면도 보기가 좋았습니다.

또 다른 진 풍경은 토끼들이 동네에 많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동요에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충깡충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를 생각하게 합니다. 토끼들이 많다 보니까 별로 이상하지가 않아요. 수희네 집 앞에서 놀다가 옆집으로 뛰어가곤 합니다. 그뿐 아니라 다람쥐도 많은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지요. 다람쥐는 나무만을 올라 다니는 것이 아니고 지붕 위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재롱을

택사스 달라스지역의 페어뷰 교회

달라스 제일연합 감리교회가 교회이름을 '페어뷰 교회' (영어이름: Fairview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로 정하고 새롭게 출발했다고 한다. 이름을 바꾸게 된 동기는 새주소 Fairview에있는 새 건물로 지난 4월 이전한 까닭이라고 한다. 새 주소는 885 S. State Hwy 5, Fairview TX 75069이다.

담임목사님이신 박광배목사님은 아리조나에 있는 호피인디언을 위한 선교팀을 이끌고 매년 여름마다 한번씩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를 들러서 왕래하셨고 우리교회는 그때마다 선교팀 멤버에게 잠자리를 제공했었다.

1975년에 세워진 이교회의 초대목사이신 김원기 목사도 재임시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에 오셔서 설교도 해 주셨고 후에 선교감리사로 일하실때에는 주최하셨던 알라스카 선교대회, 로키마운틴선교대회에 우리교회가 참여하여 김원기 목사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었다.

달라스 지역 플라노(Plano)로 이사가신 김준호 장로와 김수영 권사는 페어뷰 교회에 나가시고 있다. 알버커키교회와 이렇게 인연이 깊은 페어뷰 교회에 김장로내외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으로 보인다. 새성전에서 새 이름으로 부흥하는 은혜넘치는 페어뷰교회되기를 기원한다. (편집부)

부리곤 합니다. 여기는 또 큰 나무들이 많은데 수희네 집에도 집 지붕 두 배 정도 가 되는 나무가 두 구루가 있어요. 그런데 나무뿌리가 잔디 위로 삐져나와서 좀 보기가 그렇고 그렇습니다. 동네 어떤 집은 아직 그렇게 춥지도 않은데 가랑잎이 많이 떨어져 잔디밭을 확 덥어 버린 곳도 있지요.

또 많은 shrub 중 Crape myrtle 이 가장 많은 shrub인데 어떤 집은 집 앞에 8 구루의 Crape myrtle을 심어서 오색 찬란한 꽃 색갈 들을 보여 주더라구요.

여기는 쓰레기 통을 도로에다 내 놓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Alley (뒷길)에 내놓는데 한 달에 한 번은 Big trash day 가 있어서 아무리 큰 쓰레기도 깨끗하게 치워 버린답니다.

여기는 그 많은 나무에서 쓰르라미가 울 때가 많은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매미를 잡아서 놀던 생각이 나 더라구요. 매미는 "맴맴맴---맴" 하고 마지막에 맴 하고 노래를 그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원숭이 사촌이 아니던가요? 매미가 울기 시작하면 그놈을 맨 손으로 잡곤 했는데 많이 잡아서 새장에 넣고 물 접시도 새장안에 넣고 몇 가지 풀도 넣고 매미가 울기를 기다렸는데 절대로 안 울어요. 그래서 좀 짓 구진 장난을 하기도 했지요.

또 한 가지는 어떤 도로는 양쪽으로 Power line 전봇대가 서 있는데 이 나무 전봇대들이 옆으로 기우뚱 하게 쓸어지기 직전인데 처음 봤을 때는 참 위험하구나 했으나 또 보고 또 보니까 그렇게 무섭지가 않아요. 받치는 사기그릇이 3~4개 정도 되니까 아마 1000/4000 Volt 가 될 것 같아요. 만약 그 전선줄이 끊어져 도로로 내려 앉는다면 위험한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처음 여기 온 사람들에게 좀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H Mart (한아름)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K ave로 올라오면서 갑자기 Greenville ave라고 길 이름이 바뀌져 있어요. 잘못 왔나 하고 오던 길에서 U turn 하고 다시 내려가니까. 잘못 온 것이 아니고 길 이름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참 내! 혼자 중얼거리며 집으로 와서 지도를 보니까 지도에도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 근방에 또 이런 데가 있나 찾아보았더니 또 있어요. Alma St로 남쪽으로 쭉 내려갔더니 길 이름이 Collins Blvd라고 되어 있어요. 제 point는 Dallas에 와서 운전하실 때 많이 조심하셔야 합니다. 투덜 대지 마시고 조심해서 운전하셔야 합니다.

어떤 집은 아예 집 앞에 큰 나무가 하나도 없고 지붕 위에 Solar System 으로 지붕을 덥어 놓은 것도 볼 수 있어요. 문제는 효능이 제대로 나오는지가 Key 이슈입니다. 제가 일할 때 효능이 좋도록 Anti reflection coating을 해달라고 애걸하는 회사들이 있었는데 몇 번 실험 coating 을 하다가 때려 치웠습니다. 왜냐 하면 큰 운동장 만한 면적을 채우는 panel 을 AR coating를 하려면 수지 타산이 안 맞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효능이 낮 더라도 그대로 쓰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정양송 이사

뉴멕시코 한인회 이사로 지역사회를 위해 오랫동안 봉사해 오신 정양송씨(65세)가2021년 9월 30일 오전 4시 30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인을 추모하며, 유족을 위한 장례예배가 10월 9일(토) 오후 2시 French Funerals(7121 Wyoming Blvd NE Albuquerque)에서 김민순 목사(갈릴리 장로교회)의 집례로 있었습니다.

장례예배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305)" 찬송으로 시작하여 정해중 장로의 기도가 있었고 문상귀 전회장은 고인의 약력을 소개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솔선수범 해온 고인의 봉사활동을 기렸습니다. 장남(정진)의 추모사에 이어 김민순 목사님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제목으로 시편 73편 23-28절 말씀으로 설교해 주셨고 정대식 전 부회장의 인사와 광고와 찬송(85장), 축도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장례예배 후 조객을 위한 유가족이 준비한 식사를Buffet King에서 함께 가졌습니다.

아래는 고 정양송씨의 약력입니다.

부 정전건. 모 김판례.
-1956년 8월 21일 출생.
-7남매중 여섯째.
-전북대학교 화확과 졸업.
-중앙여자 중학교에서 교편생활.
-1984년 정연희씨와 결혼.
-1985년 도미.
-2021년 9월 30일 소천
-한인회 이사로 한인사회를 위해 봉사 하셨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솔선수범 하면서 도와줌.

하나님의 부름받은 조용기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85)는 지난 9월14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장례예배는 18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한국교회장(韓國教會葬)으로 치러졌습니다. 예배에는 유가족들을 비롯해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와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회장인 장종현 총회장(예장백석),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이철 감독회장 (기독교대한감리회) 등이 자리해 조 목사의 영원한 안식을 기도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현장을 찾을 수 없었던 성도들은 유튜브 채널 생중계를 통해 함께했다고 합니다.

조 목사는 그의 20대인1958년 5월 교회를 설립한 이래 60여년을 목회하였고 한때 신자 78만명에 이르는 세계 최대 교회로 성장시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1964년 이후 해외 선교에 나서 70여 국에서 370여 차례의 대형 집회를 개최해 '폴 조' '데이비드 조'라는 이름으로도 해외에 알려졌었습니다. 조 목사는 어려운 이웃을 돌보기 위해 사단법인 선한사람들(NGO현, 굿 피플) 설립과 헌혈운동, 소년소녀가장 돕기, 4,704명의 심장병 어린이 무료시술, 국민일보 창간 등으로 교회와 사회를 위한 많은 족적을 남겼습니다.
장례예배를 마친 조 목사의 육신은 파주 오산리에 있는 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 묘원에 안장되었습니다.

<고 정양송씨의 약력 계속>

-유가족: 미망인 정(김)연희.
자: 정 진, 정 지완.
며느리: 정희정.
손자: 제이스.

VOA KOREA

첫 흑인 미 국무장관 콜린 파월 타계.

10-19-21 Voice of America 'America Now'에서 발췌

흑인 최초로 미국 합참의장과 국무장관을 지낸 콜린 파월(Colin Powell) 전 장관이 지난 10월18일 타계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이 향년 8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최초로 미국 합참의장과 국무장관을 지냈던 콜린 파월 전 장관이 18일 타계했습니다. 유가족은 18일 인터넷 사회연결망인 '페이스북'에 파월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히고, "우리는 훌륭하고 사랑스러운 남편과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위대한 미국인을 잃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위대한 미국인'이라는 표현처럼 파월 전 장관은 미국에서 많은 존경을 받았던 군인이자 정치인이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파월 전 장관은 또 군과 외교 분야에서 수많은 '최초' 기록을 만들어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1937년 뉴욕 할렘가에서 자메이카 출신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난 파월 장관은 뉴욕시립대 학군단(ROTC) 장교로 임관했고요. 1963년에 베트남전에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에서 흑인 최초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거쳐 조지 H. W. 부시 행정부에서는 또 흑인 최초로 합참의장에 임명됐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군인 출신으로 이례적으로 외교 수장에도 오르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2001년에는 조지 W. 부시 정부 출범과 함께 최초의 흑인 국무장관에 임명돼 4년간 미국 외교 정책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이처럼 파월 전 장관은 미국 사회에 보이지 않은 인종 차별을 무너뜨렸다고 해서 '유리천장을 깬 개척자'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파월 전 장관이 미국의 영웅으로 추앙받기도 했죠?

기자) 네. 1991년 걸프전 때는 합참의장으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큰 인기를 얻었고요.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후보로까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또 9.11테러가 발생한 2001년부터는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2003년 시작한 이라크 전쟁 등 '테러와의 전쟁' 임무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2003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연설에서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확보하고 있다며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했었는데, 이듬해 이 연설이 잘못된 정보에 근거했던 것으로 인정하면서 경력의 오점으로 남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파월 전 장관이 두루두루 존경을 받았던 이유가 또 있다고요?

기자) 네. 오랜 기간에 공화당 소속으로 지내면서도 당파성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2005년 국무장관에서 물러난 뒤에, 2008년 대선 당시에는 민주당 후보로, 미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에 도전하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공식 지지했고요. 2016년 대선 때도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대신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지지했습니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도 공식적으로 지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그런지 정가에서는 모처럼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정당에 상관 없이 파월 장관 애도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8일 성명을 내고, 파월 전 장관에 대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미국인 가운데 한 명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파월 전 장관은 전사와 외교관, 두 직책 모두에서 최고의 이상을 구현한 인물"이라고 추도했습니다. 또 파월 전 장관을 국무장관으로 발탁했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성명을 내고 파월 전 장관은 대통령의 자유 메달을 두 번 받은 인물로 미국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은 존경을 받았다고 평가했는데요. 전직 대통령뿐 아니라 현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을 비롯해 정가에서는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고요. 파월 전 국무장관을 기리기 위해 워싱턴D.C. 일대에는 성조기가 조기로 게양돼 있습니다.

뉴멕시코주 한인 교회 안내

갈릴리 장로교회 (Albuquerque)
김민순 목사 (505)975-0322
주일예배 시간: 오후 1:00 pm (예배 후 점심식사 교제)
어린이주일학교 시간: 오후 1:00 pm
토요새벽예배 시간:7:00 am
주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lbuquerque, NM87112 교회 웹사이트:www.galileeabq.com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주일예배 시간: 10:30 am
새벽예배및 기도회 : 5:30am(mon-sat)
금요예배및 기도회: 7:30pm-10pm
주소: 2395 N Solano Dr., Las Cruces, NM 88001

라스 쿠르세스 장로교회 (Las Cruces)
유평산 목사 (915)329-3451
주일예배 시간:10:30am
주소: 200 E. Boutz rd, Las Cruces, NM88005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한인 교회 (Los Alamos, Santa Fe)
김석훈 목사(505)699-4775
주일예배 1부 시간: 11:30 am
주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시간: 2:00 pm
주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e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웹사이트: www.santafekorchurch.net

알버커키한인교회 (Albuquerque Korean Presbyterian Church:PCA)
이명길목사 (505)730-3614(hand)
교회 홈페이지: www.abqkc.org
새이스라엘 월간 홈페이지:www.abqnim.com
예배처: 13804 Spirit Trail Place NE Albuquerque, NM 87112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 (505)-803-7716
주일예배 (Korean Worship) 11:00 am (Sunday)
영어예배 (English Worship) 9:00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Zoom)10:00 am (Sunday)
새벽기도회 6:00 am (Tue-Sat.)
주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웹사이트: www.kumcabq.com
www.facebook.com/kumcabq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Albuquerque)
윤성열 목사 (505) 331-9584
주일예배 시간: 오전 9:00 am / 오전 11:00 am
새벽기도회 5:45 am (Tue-Fri)
수요 예배 매주 수요일 7:00 pm
주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Albuquerque)
민명희 스텔라 사목회장 / 이성희 요한 총무/기획부장
주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532 Vermont St NE, Albuquerque, NM87110
소공동체(화,오전), 성령기도회(수,저녁)
기도회: 매주 토요일 아침 09:00
장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St. Frances Hall
Contact :(505)-503-9846
기도회 회장: 루피나 장경림 자매님
웹사이트:cafe.daum.net/abq-catholic

주님의 교회 (Albuquerque)
The International Church of the Foursquare Gospel
김의석 목사 (505) 903-2297
주일예배 시간: 오후 2:00 pm
새벽기도회 6:00 am (월~토)
성경공부 매주 목요일 10:00 am(교회)
*Women's English Bible study 격주 금요일 10:00am
*English Bible conversation group for young adults and UNM students 매주 일요일 1pm @ church.
주소: 12120 Copper Ave.NE,Albuquerque,NM 87123

클로비스 한인 교회(Clovis)
이성희 목사 (575-791-1453)
Korean Full Gospel Church of Clovis
405 Connelly St. Clovis, NM 88101
주일예배:12:00pm 수요모임 11:30am
금요예배: 7:30pm
아침기도회: 7:00am(월, 화, 목, 금)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New Mexico
2021년 11/12월호
발행일 : 2021.11.1
발행인 : 김기천 (Rev. Kee-Cheon Kim)
편집부장 : 이경화 (Kyong Hwa Lee)
출판부장 : 권구자 (Koo-Cha Choy)
광고담당 : 신옥주 (Ok-Ju Shin)
발행처: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출판부
Korean UMC in Albuquerque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E-Mail : voiceofnm@gmail.com

광야의 소리 원고는 매 짝수달 두째 주말까지 받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독자 여러분의 좋은 글이나 사진을
E-mail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단 정치적인 글은 사양합니다.)

호외 /한국학교

뉴멕시코 통합한국학교 교장 인사

이수신
뉴멕시코통합한국학교장

뉴멕시코 학부모 및 한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들에게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선물해준 시원한 가을도 감사의 여운을 완연히 만끽하기도 전에 갑자기 다가오는 겨울이라는 계절에 주도권을 빼았기고 있음을 차가운 밤공기를 통하여 실감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가을학기는 새로운 교실에서 하는 첫 수업이라 마음도 설레고 기대도 컷지만 교실이 생각보다 협소하여 많은 아쉬움 또한 교차했습니다. 예년보다 많은 학생들이 등록하여 주방에도 임시교실을 만들어 성황리에 한글공부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협소한 장소에 교실을 만들어 그 크기가 작아서 팬데믹 상황하에서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아 늘 마음 졸이며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100% 마스크 착용과 적절한 환기등 모두가 한 마음으로 방역지침을 잘 지켜주신 협조 덕분과 한글과 한국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보석같은 우리 어린이들의 뜨거운 학습 열기에 아무런 불상사없이 무사히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학기에는 특별활동 시간에 학부모들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변경하여 여러가지 유익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학부모 회장으로 봉사해주신 이계선님이 기꺼이 교감의 직책을 맡아 주시고 학부모들과 정성껏 준비하여 학생들에게 흥을 북돋아 주고 많은 공감과 함께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가위 행사에서는 한과 만들기, 한글날 특별활동에는 세종대왕과 한글을 소개하고 왕이쓰는 모자인 익선관을 손수 만드는 활동을 하였고, 독도의 날 행사에서는 독도가 왜 우리의 땅 인지를 알기쉽게 설명해서 멀리 미국에서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직한 독도 지킴이가 되게 해 주었습니다. 할로윈 데이 특별활동은 학생들이 할로윈 복장을 하고 등교하여 다양한 장식품을 직접 만드는 흥미진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감 선생님과 학부모님 여러분들의 협력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상생활 중에서도 기꺼이 한글반 선생님을 맡아주신 모든 선생님들과 보조교사로 봉사에 참여한 고등학생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봄학기에는 유아반, 초등반과 중고등학생 수업시간을 분리할려고 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대유행병과 협소한 장소때문에 방역문제도 있지만 어릴때 한글학습 기회를 놓치고 훌쩍 성장해버린 중고등학생들에게 늦은감이 있지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우리속담에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한인공동체에 몇몇안되는 우리 한인 학생들이 여러학교에 뿔뿔이 흩어져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어서 비록 주말이라는 짧은 시간에 모여서 한글학습과 더불어 한민족이라는 정체성과 유대감을 형성해 나가는 귀중한 시간을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20세기 초에 미국의 몇몇주에서는 one-drop rule 이라는게 있었습니다. 백인들 사회에서 한방울의 흑인의 유전자가 섞여있어도 백인이 아닌 흑인으로 취급한다는 것인데.
뉴멕시코 통합한국는 1% 한민족의 DNA 만 있어도 한인 공동체의 일원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한국말이 좀 서툴다고 부끄러워 하거나 망설이지 마시고 한글반에 등록하여 한글공부의 혜택을 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학교에 후원품을 보내주신분들께 감사를 표하고자 이 지면을 통해 후원해 주신분을 소개합니다.
김창호씨 내외분 칼라 프린트 용지 2박스, 책 5박스
위점덕 한인회 이사님 도미노스 피자 10판 후원에 학교를 대표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정성어린 후원금과 후원품은 뉴멕시코 통합한국학교의 지속적인 발전과 학습 프로그램 개발및 향상에 커다란 도움이됩니다. 후원은 교장과 한인회장에게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뉴멕시코 통합한국학교장 이수신

호외 /한국학교

사진으로 보는 한국학교 특별활동

뉴멕시코 통합한국학교

2022 봄학기 한글반 등록안내

봄학기 한글반 개강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학생들이 한글학습의 혜택과 함께 한민족이라는 정체성과 한인학생들간의 유대감을 향상시키는 많은 기회를 제공할려고 합니다.

- 수업료: $165.00 (둘째 $150.00, 셋째부터는 무료)
- 등록비: $30.00 (조기등록시 면제2021년12월20일까지 등록시)
- 수업요일 및 시간:유아및 초등학생반: 매주 토요일 오전 9:10-12:30
  중고등학생반: 매주 토요일 오후 1:00-4:00
  성인반 1 (초급, 중급, 고급반) 매주 금요일 오후 5:30-7:30
  성인반 2 (초급, 중급, 고급반) 매주 토요일 오후 4:30-6:30
- 봄학기부터는 한 학급당 최소인원이 5명입니다. (5명미만일 경우 통합 또는 취소됨)
- 수업기간: 1월 28일 부터 5월 7일 (APS 봄방학주는 수업없음)
- 학교위치 및 주소: NM Korean Language School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문의 및 상담: 이수신 교장
문자 및 전화: 505-515-4677
이메일: nmkoreanlanguage@gmail.com
Web: kaanm.com (홈페이지 상단 Language school)

- 오리엔테이션 및 학급편성:
  1월21일 오전 10:00-10:50 (유아, 초등, 중고등반)
  오전 11:00-11:50 (성인반)
- 수업료 및 등록비 납부방법: 등록신청서 작성후 첵이나 머니오더 동봉후 우편으로 납부(pay to the order of: KAANM, 첵 왼쪽하단에 학생이름 기재요망)
  등록신청서는 학교에서 배부 혹은 KAANM.com 에서 프린트 가능.
- 환불없음, 단 학급취소시 전액환불
- 수업은 대면으로 하고 온라인 수업도 개강합니다.
  원하시는 수업란에 in-person 혹은 zoom에 표시하세요.
- 온라인 수업시에는 @gmail.com 이메일 사용필수

***한국학교는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와 주정부 보건국의 지침을 따릅니다. ***

광고를 통한 후원에 관해서는 voiceofnm@gmail.com으로 또는 (505)275-9021(광고담당:신옥주) 로 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퇴플랜 생명보험 401K Rollover
학자금 롱텀케어 택스절세플랜

당신의 미래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Check Points:
- 평생을 보장받는 은퇴연금을 준비했나?
- 중병이나 만성질환에 대비하고 있는가?
- 세금 절세플랜을 가지고 있는가?

Han Ju Lee
Financial Professional
CA Lic. 0K41143
NM Lic. 17684619
carlitos3840@gmail.com

Call Today!
213-321-8787

R1 NEW MEXICO
THE FUTURE OF REAL ESTATE

김영신/부동산중개인
Yong Shin Kim
505.321.7695
yongshinkim001@gmail.com
www.R1newmexico.com
505.883.9400